

COVER STORY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COLUMN

부산, 도시위상을 위한
디자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구박갤러리



모데나꼬무날레극장 공동제작 콘서트 오페라

I PURITANI

청교도



2021. 11. 10 | 수 | 19 : 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SOL'OPERA

티켓_V석 9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예매 및 문의_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051.607.6000 (ARS 1번)



Changing

Connected
moments

이어지는 순간,
변화하는

Changing,
Connected
moments



2021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제20회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2021 부산국제아트페어

2021.12.02(THU)-
06(MON)
BEXCO/BUSAN

주최/주관
Host / Managed by



주관홍보사
Host News Agency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I'

HEALING

유명지휘자

부산시립합창단

FOR

객원지휘 이수은

코로나 19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음악회

YOU

포유

| E. Whitacre
Lux Aurumque

| 조혜영
가고파

| 이수은
내 안에 당신

| J. Pachelbel
Canon

| R. Schumann
Zigeunerleben Op.29-3

| Lisa G. Gerrard
Nelle Tue Mani

| 조항조
고맙소

| J. Brahms
Liebeslieder Waltzer Op.52

2021. 11. 9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 티켓 | 전석 10,000원

| 예매 | www.bscc.or.kr

| 문의 | 607-6000(ARS1번)

서부산권 문화의전당
을숙도문화회관

제81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부산광역시
을숙도문화회관

國·香·萬·里

국향 만리

신유 & 오케스트라



해금
김나영



첼로
홍승아



전통타악연희단
풍물마당

2021.11.19.금. 19: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부산국악오케스트라 BKO 공연문의 | 051.220.5811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YES 24.COM (예매 시 20% 할인) 관람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II

2021. 11. 6 (토)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 **김수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연출 / **김지용**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객원안무 / **홍충민** 피아노 / **이영옥** 성악지도 / **김희정**

특별출연 / 태평소 **김경수** 모듬북 **송강수** 팽과리 **이주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 전석 2,000원 예매 / www.bscc.or.kr 문의 / 051-607-6000(ARS 1번)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Fantastic

판타스틱

2021. 12. 2 (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명근**



바이올린 **이서현**

Program

장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Jean Sibelius /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47

에토르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Hector Berlioz / Symphonie Fantastique Op.14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OO-YEOL CHOI, ARTISTIC DIRECTOR

※ 전연령 관람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아이 음악회

BPO Kids Concert

2021. **11.11** (목) | **12** (금)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모차르트 ·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제1악장
Wolfgang Amadeus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1st mov.

블레이크 · 더 스노우맨
Howard Blake · The Snowman

연 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 휘 이민형
내레이션 박찬영
특별출연 황민혁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전석 5,000원 문의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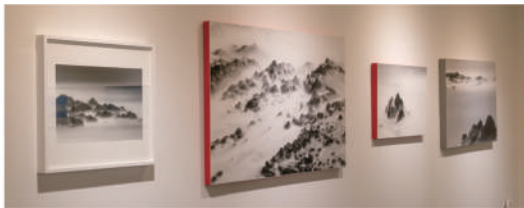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ONTENTS

11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November 2021 Vol.359

2021년 11월호 통권 359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1년 10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10 Cover Story

12월이 기다려지는 전막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4 Column

부산, 도시위상을 위한
디자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16 반갑습니다

제63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5관왕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박재홍

20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④

팬데믹 속에서 피어난 예술

24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사진 중심으로 문화를 탐하다
구박갤러리

28 Preview

36 Issue

가을 감성을 자극할 가을 연극축제

38 Review

42 Program Guide

60 New Book

61 BSCC News

SUN	MON	TUE	WED
<p>1</p> <p>공포영화</p> <p>'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1</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글라리아 주미 강&김선옥 듀오 리사이틀' 19:30</p> <p>대 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p> <p>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2021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 19:30</p> <p>중 (위빈체로(010-4642-9192))</p> <p>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20:00</p> <p>캠 초대/김윤희(0507-1330-9839)</p>	<p>3</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재미있는 신나는 국악' 10:30</p> <p>캠 부산시립예술단 공연</p>
<p>7</p> <p>제103회 전국무용예술제 10:00</p> <p>대 정성철(010-5264-8880)</p> <p>해운대구립 여성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7:00</p> <p>중 해운대구립 여성합창단(010-9588-1268)</p> <p>이보미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17:00</p> <p>캠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8</p>	<p>9</p> <p>◆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및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II 'Healing for You' 19:30</p> <p>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4회 나눔행복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p> <p>중 초대/나눔행복합창단(525-9100)</p> <p>루체살레 제2회 정기연주 '사랑에 살고 예술에 살고' 19:30</p> <p>캠 전석 2만원/루체살레(010-5015-9215)</p>	<p>10</p>
<p>14</p> <p>2021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17:00</p> <p>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867-0501)</p> <p>창작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15:00</p> <p>중 5만원-4만원-3만원 극단 네이호우(010-9984-2893)</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화-The Solist' 16:00, 19:30</p> <p>캠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5</p>	<p>16</p> <p>고신티아노소사이어티 '20세기 음악의 밤' 19:30</p> <p>캠 고신티아노소사이어티(010-7742-0556)</p>	<p>17</p>
<p>21</p> <p>(재)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 '오랜기억' 17:00</p> <p>중 빅피쳐스테이지(010-4820-1736)</p> <p>Tango in Jazz&Classic 17:00</p> <p>캠 전석 2만원/더아티스트(010-9371-8987)</p>	<p>22</p>	<p>23</p> <p>작곡동인 세움 제10회 작곡 정기 발표회 '클라리넷으로의 초대' 19:30</p> <p>캠 초대/작곡동인 세움(010-3338-1906)</p>	<p>24</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0회 정기연주회 '2021 꿈과 감성이 있는 가을' 10:30</p> <p>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DÓNÓ the 1st Concert 'Romantic' 19:30</p> <p>캠 초대/DÓNÓ(010-2000-0000)</p>
<p>28</p> <p>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p> <p>대 조경식(010-3932-0958)</p> <p>동아대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p> <p>중 동아대학교(200-1760)</p> <p>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생상과 소월 함께 본 하늘' 16:00</p> <p>캠 전석 2만원/예술기획 미담(010-4680-0051)</p>	<p>29</p>	<p>30</p> <p>부산하모니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19:30</p> <p>중 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010-5141-0776)</p>	<p>31</p> <p>제17회 부산국제음악제 11월 2일(화)-11월 3일(수) (사)부산국제음악제</p> <p>제47회 부산미술제 11월 15일(월)-11월 16일(화) (사)부산미술협회</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3	4	5	6
<p>예술교육공연 '재밋는 국악 사업팀(607-3113)</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재밋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캠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9:30 중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재밋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캠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양탄자타고 음악여행II' 19:00 대 전석 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5:00 중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테너 양수배 독창회 17:00 캠 초대/양수배(010-6388-6919)</p>
0	11	12	13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우리아이 음악회' 11:0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우리아이 음악회' 11:0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창작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17:00 중 5만원·4만원·3만원 극단 네이호우(010-9984-2893)</p> <p>아르떼음악회 제6주년 정기연주회 '가을의 노래' 18:00 캠 초대/아르떼음악회(010-5035-5020)</p>
7	18	19	20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19:30 대 5만원·4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1회 부산국제현대음악제 19:30 캠 부산국제현대음악제(010-6419-3635)</p>	<p>(재)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 '오랜기억' 19:00 중 빅피쳐스튜디오(010-4820-1736)</p> <p>제1회 부산국제현대음악제 19:30 캠 부산국제현대음악제(010-6419-3635)</p>	<p>2021년 풍류전통예술원 기획공연 '영남의 소리를 찾아서 2 '峨眉山月歌(아미산월가)' 19:00 대 전석 1만원/풍류전통예술원(010-2781-3888)</p> <p>(재)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 '오랜기억' 17:00 중 빅피쳐스튜디오(010-4820-1736)</p> <p>고은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7:00 캠 전석 2만원/고은비(010-4679-9046)</p>
4	25	26	27
<p>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젊은 음악회' 19:30 문화회관(607-6000)</p> <p>Baroque & (010-831-0981)</p>	<p>강한솔, 정은혜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9:30 중 전석 2만원/예술기획 마음미인(010-8367-3033)</p> <p>최민경 피아노 독주회 19:30 캠 초대/최민경(010-9496-2687)</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브람스'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5회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캠 전석 2만원/아첸투스(010-8559-0415)</p>	
<p>차어울림문화제 4월 4일(목) 후원 권옥희 010-8509-3960</p> <p>대전 2월 5일(일) 645-390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1</p> <p>'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 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1</p>	<p>2</p> <p>한화생명 콘서트:이날치, 범 내려온다 19:30 대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주)제이에스바흐(070-4234-1305)</p>	<p>3</p> <p>제9회 BBS 마인드힐링 대 부산불교방송(797-1111) 제59회 부산예술제_秀秀 이야기' 19:30 소 (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7</p> <p>한번 더 힘을 내 16:00,19:00 대 (주)케이타이거즈(031-938-0251) 제59회 부산예술제_秀秀한 연극초청전 '개 짚는 날' 17:00 소 (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8</p>	<p>9</p>	<p>10</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개 짚는 날' 19:30 대 7만원 5만원 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35-1111)</p>
<p>14</p>	<p>15</p>	<p>16</p>	<p>17</p> <p>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00 소 부산지방보훈청(256-1111)</p>
<p>21</p> <p>어린이뮤지컬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1:00, 14:00, 16:30 소 전석 5만5천원/극단 화랑(1644-5564)</p>	<p>22</p>	<p>23</p> <p>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19:30 대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010-9390-0790)</p>	<p>24</p> <p>(재)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예전시명품극장 '춘향탈' 19:30 소 무료(사전예매 필수) (재)부산문화회관(635-1111)</p>
<p>28</p> <p>코리아뮤직앙상블 제2회 영아티스트콘서트 16:00,19:00 소 코리아뮤직앙상블(010-4189-0719)</p>	<p>29</p>	<p>30</p> <p>떴다! 광대 연희 챌린지 19:30 소 전석 2만원/부산예술단(010-3585-0115)</p>	<p>31</p> <p>제59회 부산예술 11월 1일(월)-11월 7일(일) (사)부산사진작가협회(010-3585-0115) 제59회 부산예술 11월 5일(금)-11월 7일(일) 부산꽃예술작가협회(010-3585-0115) 부산대학교 미술대학 11월 9일(화)-11월 11일(목) 구우회 010-995-1111</p>

공연

부산시민회관 전시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p>18:00 (03132) 통한 연극초청전 '복녀씨 이야기' 19:30 (045-3759)</p>	<p>제59회 부산예술제_秀秀한 연극초청전 '복녀씨 이야기' 19:30 ☎ (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한번 더 힘을 내 16:00, 19:00 ☎ (주)케이타이거즈(031-938-0251) 제59회 부산예술제_秀秀한 연극초청전 '개 짚는 날' 17:00 ☎ (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공연_콘서트 오페라 '참교도' (07-6000)</p>	<p>Turn Toward Busan 2021 평화물결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19:30 ☎ 무료/부산일보사(461-4436)</p>	<p>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공연 '교실 밖 합창여행' 10:30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18:00 (05815)</p>	<p>부산YWCA 75주년 기념 생명/평화를 위한 북콘서트 15:00 ☎ 부산YWCA(441-3690)</p>	<p>아르고윈드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19:30 ☎ 아르고윈드오케스트라(010-3838-4291)</p>	<p>2021 대한민국 공연예술제_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 개막공연 '갈라콘서트' 16:00 ☎ 8만원·6만원·4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 어린이뮤지컬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1:00, 14:00, 16:30 ☎ 전석 5만5천원/극단 화랑(1644-5564)</p>
<p>화가 있는 날 (030-5232)</p>	<p>1·4후퇴 70주년 기념 '다시부르는 피란수도, 부산' 19:30 ☎ 10만원·5만원·3만원 부산오페라연합회(010-9390-0790) 2021 대한민국 공연예술제_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 미니오페라 '코지 판 투테' 19:30 ☎ 4만원·2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p>	<p>2021 생명나눔의 날 '제16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19:00 ☎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853-0429)</p>	<p>스티브 바리캣 내한공연 with 데이드림 17:00 ☎ 8만원·6만원·4만원·2만원 실버트레인(1544-1555) 제4회 서영교 색소폰 독주회 19:30 ☎ 서영교(010-6886-5896)</p>
<p>제 사진전 11월 3일(수) 제1, 2전시실 협회 631-4111</p>	<p>제47회 부산미술대전 11월 15일(월)-11월 20일(토) 제1, 2전시실 (사)부산미술협회 645-3900</p>		
<p>제 꽃예술전 11월 7일(일) 제1, 2전시실 회 612-2604</p>	<p>고은포토1826 제5회 비엔날레 Takers vs Makers 11월 23일(화)-12월 20일(월) 제1, 2전시실 고은포토1826 010-6391-7917</p>		
<p>학과 조소전공 졸업전시회 11월 12일(금) 제1, 2전시실 0-7783</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십시오.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12월이 기다려지는 전막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올해도 어김없이 발레 '호두까기인형'과 함께 연말이 성큼 다가왔다. 끝나지 않는 지리한 팬데믹 속에서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우리를 실레게 한다.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12월의 시작을 알리는 1일과 2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으로 연말에 놓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선사한다.





수요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48개월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21. 12. 1(수) ~ 12. 2(목)



전석 매진행렬을 이어온 연말 시즌 스테디셀러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콥스키의 고전발레 3대 걸작으로 꼽히는 '호두까기인형'은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극장에서 처음 무대에 올려진 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공연이다. 특히 동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속에서 화려한 발레 테크닉과 동화 속 나라를 연상케 하는 무대와 의상,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특별한 음악선물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 세계 공연장에 공연되고 있다.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낭만파 소설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독일 작가 에른스트 호프만이 지은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을 원작으로,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일컬어지는 차이콥스키가 음악을 작곡했다. 당시 마린스키 극장의 수석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발레로 구성하고 차석 안무가 이바노프가 수정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초연 당시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박수를 받았지만 공연 자체는 준비 부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진가를 인정받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후 차이콥스키는 전 15곡으로 되어 있는 작품 중 8곡을 발췌하여 연주회용 모음곡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크게 성공하면서 모음곡 역시 현재 연주회장에서 자주 연주되고 있다.



차이콥스키와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완성한 아름다움의 절정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 호두까기인형을 선물 받은 어린 소녀 마리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신한 호두까기인형과 크리스마스 랜드를 여행하는 내용으로, 주인공 마리를 크리스마스 랜드로 안내하는 마리의 대부 드로셀마이어와 왕자로 변신하는 호두까기인형에 대한 재해석과 연출이 안무가별로 큰 차별성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의 국립발레단과 바실리 바이노넨 버전의 유니버설발레단 공연이 있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천재 안무가로 불리는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1966년 마리우스 프티파의 원작을 재안무하여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이 초연한 작품으로, 2000년 국내 초연 이후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한 스테디셀러다. 유리 그리고로비치는 1964년 불과 37세의 나이로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쇼이발레단 예술감독에 취임한 뒤 1995년까지 30년 이상 볼쇼이발레단을 이끌었다. 특히 그는 당시 마린스키발레단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볼쇼이발레단을 러시아 대표 발레단으로 발전시키며 '발레=볼쇼이'라는 신화를 이룩한다.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의 '호두까기인형'에서는 작품 속 소녀의 이름을 원작 그대로 '마리'라고 하고, 마리의 대부 드로셀마이어를 마법을 쓰는 신비로운 인물로 설정하는 등 각 등장 인물에 구체적인 설정을 추가해 극의 개연성을 높이면서 작품을 더욱 입체적이고 화려하게 그리고 있다. 여기에 주인공 소녀를 1, 2막에 따라 어린이와 성인으로 나눠 맡는 바이노넨 버전과 달리 전막을 성인 무용수가 맡으며, 호두까기인형 역시 목각인형 대신 어린 무용수가 직접 연기한다.

특히 높은 점프와 고난도 회전, 역동적인 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드로셀마이어의 마법으로 생명감을 얻어 살아 움직이는 각 나라 인형들의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

줄거리와 상관없이 펼쳐는 춤의 향연)도 보다 화려하고 고난도의 춤으로 구성되어 볼거리를 더했다. '눈송이 왈츠', '꽃의 왈츠' 등 수준 높은 코르드발레(군무)와 마리와 호두까기왕자의 2인무(파드되) 등 도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져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대한민국의 발레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에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한국 발레 역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강수진 단장 겸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함께 세계적인 명작들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끊임없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국립발레단의 대표적인 전막 작품으로는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호두까기인형', '백조의 호수', '스파르타쿠스', '라 바야데르', 파트리스 바르의 '지젤', 존 크랭코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마르시아 하이데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크리스티안 슈콕의 '안나 카레니나', 조지 발란신의 '세레나데', '주얼스', 이ერი 킬리안의 'Forgotten Land'와 'Sechs Tänze', 우베 솔츠의 '교향곡 7번', 글렌 테틀리의 '봄의 제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지난 2020년에는 마리우스 피티파 원작의 전막발레 '해적'을 국립발레단만의 버전으로 각색 및 재안무하여 세계 초연함으로써 레퍼토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립발레단 고유의 창작 레퍼토리로는 '왕자호동', '허난설현-수월경화', '호이 랑'이 있으며 2015년부터 시작한 'KNB Movement Series'로 신진 안무가 발굴 및 소품 레퍼토리 개발을 통한 창작발레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은 '호두까기인형'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미취학아동 할인부터 해마다 기획공연으로 선보인 '호두까기인형' 관람자들을 위한 마니아 할인까지 다양한 할인혜택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반자(4인) 외 거리두기 좌석제를 적용하며, 48개월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공연문의 및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및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가능하다.





호두까기인형

2021. 12. 1. | 수 | ~ 2. | 목 |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 도시위상을 위한 디자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홍동식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이제 COVID-19, 코로나와 함께 한 시간이 거의 2년이 되어간다. 이제 우리는 마스크와 함께하는 생활과 방역에 익숙하다. 작년까지는 백신의 접종을 학수고대하며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를 외쳤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함께 지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2년 전의 일상생활로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중, 일반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 중 하나는 당연히 외국 여행을 첫 번째로 꼽았다.

부산은 공교롭게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체 중 세계적 관광도시로의 잠재력을 보유한 국제 관광도시 공모에서 최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정부가 선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이 가장 우수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문도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고 다양한 축제, 역사문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핵심 사업이 돋보이고, 정책이해도가 높아 향후 남부권의 국제관문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도시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부산시의 국제관광도시 달성을 위한 상세히 핵심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핵심사업 분야로 ▲국제관광 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브랜드 전략 수립 ▲부산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등 '부산 브랜딩' 사업 ▲해외매체 광고 및 드라마 촬영지원 등 '전략적 홍보·마케팅' ▲일상이 관광이 되는 해양 레저체험 콘텐츠 및 걷기코스 개발 등 'Beach Life & the City' ▲국제영화제 갈라쇼 상품 개발 등 '세계질 축제와 MICE 발굴' 등 33개 세부사업에 879억 원을 투입한다.

둘째, 전략사업 분야로 ▲부산형 관광플랫폼 TaaS 구축 등 '혁신적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부산관광 패스 개발 및 대중교통 불편개선 등 '편리한 여행환경 조성' ▲부산 관광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및 관광·MICE강소기업 육성 등 '부산형 관광생태계 조성' ▲범시민 외국인 친절 캠페인 등 '글로벌 친화 여행문화 개선' 등 19개 세부사업에 585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부산형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시티투어버스 운영 개선, 도시재생 연계 관광 생태계 조성 등 관광 연계 사업으로 36억 원을 투입하여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부산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제원을 투자하며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발전시킬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부산시와 관계되는 총체적인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라고 여겨진다. 저자는 몇 년간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교육 중 <지역공공캐릭터 활성화 방안-디자인, 이야기에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시각요소를 제시하고자 부산시 관련 디자인 현황을 화두로 삼고 있다. 먼저 부산시의 상징마크 디자인은 1995년 3월에 지정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2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부산 시장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상징디자인은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소위 말하는 나쁜 디자인(?)이 아니라 진부한 느낌은 누구나 감지하기에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고 품격이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만든 마스코트 캐릭터가 있다는 것 또한 많이들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상징 마크와 같은 해에 공식적으로 공표되었다. 부산시 상징 마스코트의 이름은 '부비(BUVI)'로 명명되어 있으며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료 없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스개 소리로 대학생 및 젊은이들에게는 '부비부비'라는 용어의 뜻은 클럽에서 음주가무와 함께 이성을 헌팅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어 조롱이 섞인 단어로 여겨진다. 이에 '부비'의 명명과 사용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시의 공식 서체인 부산체 또한 1995년에 개발된 제목용 서체로서 누구나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쓸 수 있다. 부산체에 관한 요소들은 저자가 만든 책, <글꼴을 보다 부산을 읽다>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지만 공교롭게도 한양울릉도체와 너무도 유사하다. 그리고 부산체를 7tp로 했을 때, 작아지면 문지는 복잡한 글자가 되어 인쇄가 되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부산체는 현재 부산시의 행정기관에서 표지판 등으로 가끔 활용되고 있지만 가독성과 조형미의 부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부산체 또한 부산시의 공식 서체로서 재고되어야 한다. 저자는 디자인 교육자로서 부산시에 20년 이상 살아오며 남다른 애함심과 오지랴로 부산시의 도시위상을 위해 기본적인 디자인들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제는 워드 코로나의 시대가 도래하며 다시 외국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물밀듯이 방문하는 시기가 된다. 이는 부산시가 자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기 위한 호재가 됨을 예측한다. BTS와 오징어게임의 열광은 단순히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를 향한 우수성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시대성을 대변하는 콘텐츠의 우수성과 함께 직관적이며 유미적인 시각적 요소가 가득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누군가가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어라 했다. 부산이여 디자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힘차게 노를 저어 보자!



마스코트-부비(BUVI) 1995.6.14
BUSAN VISION, BUSAN VITALITY, BUSAN VICTORY



상징마크, 시그니처 1995.3.28
부산시 상징마크 + 부산시 로고(부산체)

• 반갑습니다

2021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5관왕에 빛나는

박재홍 피아노 독주회

2021. 11. 18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 A R K J A E H O N G



‘피아노 영재’라는 수식어를 뛰어넘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연주자 반열에 오른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부산을 찾는다.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올해 9월 이태리 볼치노에서 막을 내린 제63회 페루초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과 함께 부조니 작품 최고연주상, 실내악 최고연주상, 알리체 타르타로티상, 키보드 커리어 개발상 등 무려 4개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케이 클래식(K-Class) 주자로 세계무대에 우뚝 섰다.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페루치오 부조니를 기리기 위해 1949년 시작된 페루치오 부조니 국제피아노 콩쿠르는 쇼팽(폴란드), 차이콥스키(러시아), 리즈(영국), 퀸 엘리자베스(벨기에) 콩쿠르와 더불어 ‘빅5’로 꼽히는 권위 있는 피아노 콩쿠르이다. 특히 우승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까다로운 콩쿠르로 유명한데, 그동안 콩쿠르를 거쳐간 수상자들을 보면 알프레드 브렌델, 외르크 데무스, 마르타 아르헤리치, 게릭 울슨, 리처드 구드 등 거장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음악가로는 1969년 백건우를 시작으로 1980~90년대 서혜경, 이윤수를 거쳐 손민수, 조혜정, 임동민, 김혜진, 원재연 등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번 박재홍의 1위 우승은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문지영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콩쿠르에서는 총 506명이 참가했는데 93명이 온라인 예선을 거쳐 총 33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박재홍을 포함 3명이 최종 결선에 올라 순위를 가렸다.

박재홍의 바르톡 소나타는 눈부셨다. 환상적인 리듬감과 정확성, 특히 1, 3악장의 열기와 흥분, 느린 중간악장의 강렬한 표현까지 재치가 번득였고, 이미 엄청난 기량을 가진 성숙한 예술가의 연주라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헤럴드 -

일찌감치 클리블랜드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와 지나 바카우어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재홍은 루빈스타인, 에틀링겐, 힐튼 헤드 등 다수의 국제 콩

쿠르에서 상위 입상하면서 세계 무대에 그 실력을 드러냈다. 콩쿠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주활동도 활발히 하면서 만 15세의 나이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헤럴드지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고, 미국 뉴욕 프리 컬렉션에서의 데뷔 독주회 역시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초대로 암스테르담과 위트레흐트에서 독주회를 개최했으며 한국,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아르헨티나, 스페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주를 펼치며 국제적으로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박재홍은 그동안 암스테르담 운하 페스티벌, 워싱턴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지나 바카우어 페스티벌, 유타 예술 페스티벌 등 세계적 명성의 음악 페스티벌로부터 초청받아 꾸준한 음악 경력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카메라타,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 협연과 함께 오메르 메이어 웰버, 에브너 비런, 레이 호토다, 게하르트 짐머만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도 호흡을 맞췄다. 한국 예술종합학교 음악과 전체 수석으로 입학하여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세계적인 연주자를 키워낸 피아니스트 김대진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피아노곡으로, 슈만의 천재성이 가장 탁월하게 발현된 작품으로 평가받는 슈만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을 비롯해 부조니 ‘쇼팽 프렐류드에 의한 10개의 변주 BV 213a’,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 29번 ‘함머클라비어’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슈만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
- 부조니 쇼팽 프렐류드에 의한 10개의 변주 BV 213a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9번 내림나장조 작품 106 ‘함머클라비어’

그날의 감동을 직접 확인하다

부산에서 첫 독주회 갖는 피아니스트 박재홍

2021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5관왕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콩쿠르 우승 후 갖는 국내 투어로 그날의 생생했던 무대의 감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부산 독주회를 앞두고 콩쿠르 우승 후 이탈리아에서 머물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박재홍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리 만났다.

스승과 나눈 수상의 기쁨 알프레드 브렌델, 마르타 아르헤리치 등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이 거쳐간 콩쿠르인 만큼 저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스승이신 김대진 교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감사했습니다.

무대에서의 교감 중요 콩쿠르에 임할 때마다 항상 다짐하지만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무대에서 깊이 교감하고 즐기려 노력했습니다. 결선에서도 대곡으로 꼽히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택한 것도 '안전한 선택'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충분히 교감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재홍의 스승인 김대진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재홍은 피아노 독주에만 한정되지 않는,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음악가라며 "연주자들이 대개 자신의 장르에만 몰입하고 그 밖의 것에 대한 관심은 덜한 경우들이 많은데 재홍이는 독주뿐 아니라 실내악, 반주 등 음악적인 폭이 매우 넓다"며 이번 콩쿠르에서 실내악 최고연주상을 수상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콩쿠르 후 정해진 투어를 마치고 10월 초 한국에 입국했는데, 3~4일 후 갑자기 'I pomeri-

ggi musicali'라는, 밀라노의 전통있는 오케스트라와 연주일이 잡히면서 다시 이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I pomerigi musicali'는 클라우디오 아바도, 레너드 번스타인, 리카르도 무티, 카라얀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도 함께 했던 오케스트라인데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사장조로 협연무대를 가졌습니다. 콩쿠르 수상 후 아마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최상의 무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매일매일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생인 박재홍은 어린 시절, 클래식음악을 즐겨 들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과 자연스럽게 친숙해졌다. 피아노는 7살이라는 나이에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2014년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서 데뷔했으며, 2015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콩쿠르 1위, 2016년 지나 바카우어 콩쿠르 주니어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일찍이 그 재능을 드러냈다.

연주를 제외하고는 연습 그저 음악이 좋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보다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어서 그만큼 좋은 기회들이 빨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거의 하루종일 연습에 몰두합니다. 콩쿠르 후 연주일정이 많아진 데다 갑작스러운 연주일정도 잡히면서 새로 배워야 할 곡들도, 새로 해야 할 곡들도 많아 밥 먹는 시간, 연주시간을 제외하고는 연습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으나 한 때 세계적인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를 좋아하여 콘서트에도 갔었다는 박재홍은 지금은 책 읽고 그림 보고 음악 듣는 걸로 나름의 휴식시간을 즐긴다. 그런 그가 최근 폭 빠져 있는 취미는 바로 체스이다.



연주와 체스 큰 그림을 보고 디테일하게 한수 한수 놓으면서도 큰 폭 안에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체스와 연주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술가들 중에서도 체스의 명인이 많더군요. 작곡가로는 프로코피에프, 라벨이 그 시대의 그랜드 마스터였으며, 현대미술의 개척자 마르셀 뒤샹 역시 체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예술가이죠. 유럽에서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서인지 연주를 다니다 보면 체스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흐와 베토벤, 슈만 이걸 제 스스로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연주하는 곡의 작곡가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음악을 진짜 많이 좋아해서 그 작곡가와 그의 음악에 금방 매료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작곡가들이 그때 그때 달랐지만 그래도 언제나 제 곁에 굳건히 서 있던 작곡가는 바흐와 베토벤, 슈만입니다.

숨겨진 진주 찾기 연주자라는 직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평가된 작곡가의 저평가된 작품들을 알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숨겨진 진주들을 찾아 잘 연습하여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큼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공부해보고 싶은 저만의 작품 리스트가 아주 길데요, 마치 어릴 때 간식상자에서 초콜릿 하나하나 꺼내먹던 기분으로 소중한게 하나하나 꺼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주회가 부산에서의 첫 독주회이기도 한 박주홍은 이번 무대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인 슈만과 베토벤, 그리고 부조니 곡을 들려준다.

무대의 감동을 직접 확인 콩쿠르 끝나고 부산에서 하는 첫 번째 독주회라,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작품을 관객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쿠르 곡을 떠나서도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은 제가 정말 아끼는 좋아하는 곡이고 베토벤의 '함머클라비어'는 어느 피아니스트이건 도전하고 싶은 레퍼토리인 데다 제가 콩쿠르에서도 연주했던 곡이라 국내 관객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은 너무 좋아하는 도시인 데다 부산 관객분들의 음악사랑을 예전부터 전해듣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긴장되지만 무대에서 좋은 연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P I A N O R E C I T A L



팬데믹 속에서 피어난 예술

하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각 나라별로 정도가 다르긴 했지만 올림픽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여행도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하기에 가까운 이들과의 만남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을 현 세대는 대부분 처음 겪고 있다. 하지만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은 왕왕 있어 왔다. 그 중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1947)를 통해서 흑사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단편적이거나 알 수 있듯 흑사병은 오랫동안 유럽인들을 괴롭혀왔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이렇게 생활이 힘든데 수포가 생기고 몸이 검게 변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흑사병이 당시 유럽인들에게 준 공포는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이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술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흑사병 시대의 예술

유럽에 흑사병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현대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번지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이탈리아 상인들의 활동이었다. 흑사병은 중국 내륙의 퉁토병이었지만 몽골 군대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방의 물건을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전하던 이탈리아 상인들도 흑사병 균에 노출되게 되었다. 그렇게 중세 시기 유럽에 퍼지게 된 흑사병은 몇 백년 동안 여러 차례 유행과 정체를 반복했다. 유럽인들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살이 검게 썩어들어가는 이 전염병에 대해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원인을 몰랐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중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죄의 유무에 따라 감염된다고 생각했다. 즉 하늘의 벌이라 여긴 것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죄를 뉘우치는 즉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야가 훗날 그린 그림 **[도판 1]**처럼 방역과 위생보다는 고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한 이들은 서로 몸을 묶고 고행을 하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모두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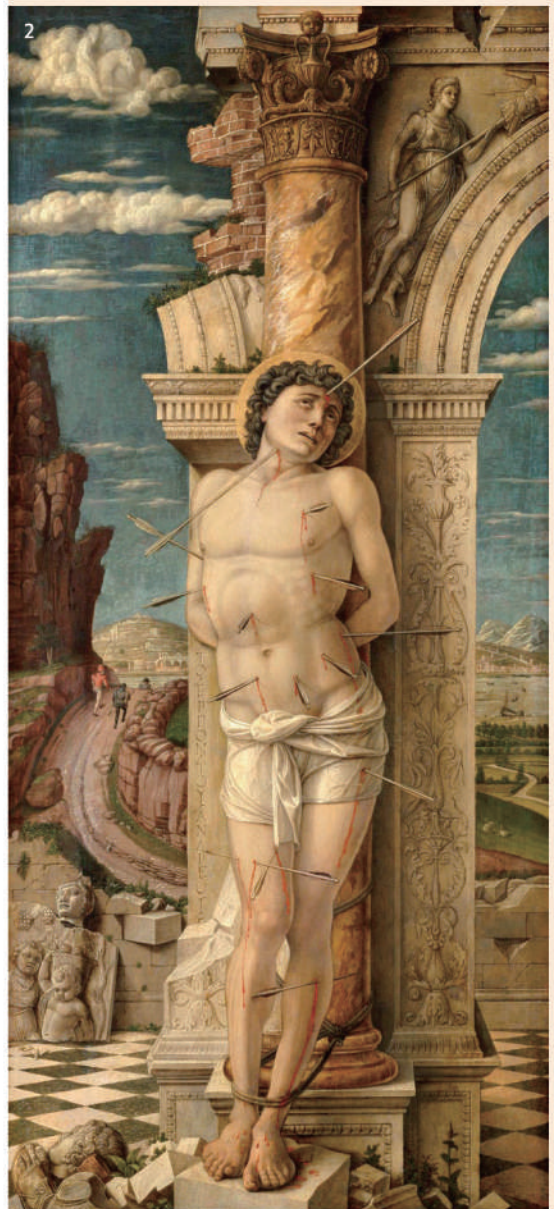
회개해서 악마와 같은 병을 물리치길 바랐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있듯이 흑사병을 더 퍼트리는 요인이 되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균에 쉽게 노출되었고 그들이 고행을 하면서 감염된 피가 주변에 흩뿌려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흑사병은 세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당시엔 몰랐다. 다행히 고야가 그림을 그린 19세기에는 이에 대한 무지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의미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자신에게 스스로 고통을 주면서라도 이겨내고 싶을 정도로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은 마치 악마와도 같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민심을 다스리기 위한 예술

무엇보다 언제 죽을 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을 경우 남은 가족의 안위는 물론이고 자신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도 알 수 없기에 더욱 두려웠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성인들의 도움을 받고 싶었다. 종교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성인들에게 기원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수도원과 성당 등의 종교시설에 후원금이 쏟아졌고, 각 시설에 필요한 예술작품을 제작해서 기부하거나 혹은 개인 예배실에 설치하기도 했다.

그 중 인기있던 성인 중 하나는 '성 세바스찬'이었다. 성 세바스찬은 로마제국의 군인인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투옥된 기독교 신자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탈출시키려다 잡히고 말았다. 자신의 군인이 배신한 것에 대해 분노한 황제는 화살로 처형하도록 지시했다. 광장의 나무기둥에 성 세바스찬은 묶였고, 사형집행인들이 쏜 수십 발의 화살을 맞았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 이렇듯 수십 발의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은 종교적 기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중세 유럽인들은 날아오는 화살처럼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흑사병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당시 성 세바스찬은 인기있는 주제였다. 화가 만테냐가 그린 성 세바스

- 1 고야, <채찍질 고행단의 행렬>, 1812년-14년, 나무에 유채, 46x73cm, 산 페르난도 왕립미술아카데미
- 2 만테냐, <성 세바스찬>, 1456년-59년, 패널에 템페라, 68x30cm,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찬[도판 2]을 보면 끔찍했을 실상보다는 신화같이 그려졌다. 광장의 나무기둥 대신 그리스 신전의 멋들어진 대리석 기둥에 선 세바스찬은 괴롭기보다는 우아하게 묶여 있다. 그리고 몸 곳곳에, 심지어 머리를 관통하는 긴 화살이 꽃혔음에도 괴로워하기 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굳힌 듯 보인다. 이러한 그림은 흑사병을 피하고 싶은 후원자가 화가에게 주문한 것이었다. 이 그림을 통해 마치 백신처럼 고통스러운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귀족뿐 아니라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많았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고자 했다. 그 중에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메디치가도 있었다. ‘메디치’는 사회의 고위층이 가지는 높은 도덕적 태도를 일컫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현대에도 일컬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메디치가는 피렌체의 평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산마르코 수도원의 제단화를 통 크게 기부하기도 했다.[도판 3]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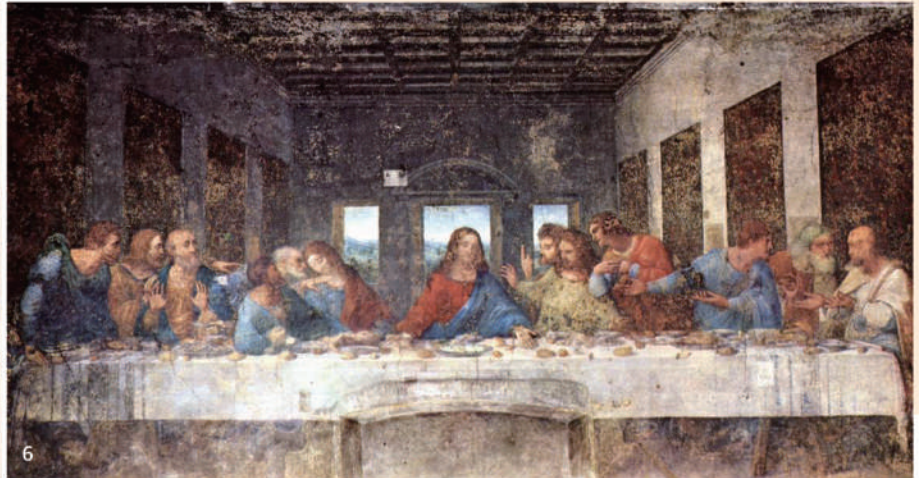
실의 안위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평민들이 열심히 기도를 드리던 이곳을 아름답고도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 가꾸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수도사이면서 뛰어난 화가였던 프라 안젤리코에게 또 다른 인기 성인인 성 다미안과 성 코스마스가 성모 자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제단화를 주문했다.

이 제단화는 수도원 예배당에서 신도들이 가장 많이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 그만큼 크고 중요한 제단화였던 만큼 메디치가는 피렌체 시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메시지를 공을 들여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두 성인의 모습은 의미가 컸다. 성 다미안과 성 코스마스는 쌍둥이였다. 게다가 이들은 의사였기 때문에 생전에 어려운 이들을 치료해주었다고 한다. 의사인데다가 쌍둥이인 성인은 흑사병의 공포에 사로잡혀있던 피렌체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3 라 안젤리코, <산 마르코 제단화>, 1438년-43년, 나무에 템페라, 220×227cm, 이탈리아 피렌체 산마르코 미술관

4 조르지오 바사리, <위대한 로렌초의 초상>, 1533-34년, 나무에 유채, 90×72cm,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5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 표지 6 레오나르도 다 빈치, <최후의 만찬>, 1498년, 복합매체, 460×880cm,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아 성당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다. 훗날 피렌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코시모 데 메디치의 이름이 바로 성 코스마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피렌체 시민이 매주 보게 되는 위치에 메디치가의 후계자를 간접적으로 홍보까지 한 셈이다. 이 뿐 아니라 산 마르코 수도원에서 매년 개최하던 ‘동방박사의 축제’에도 메디치가는 대대적인 후원을 하였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에서 진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 세명의 동방박사와 그 행렬을 재현한 행사였고, 이때 메디치가는 피렌체의 유력한 가문으로서 자신의 위세를 떨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지금은 피렌체의 관광 상품으로 매년 재연되고 있다.

르네상스로 꽃피다!

이렇듯 예술로써 흑사병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하고자 했던 메디치가와 상인들의 의도는 결국 르네상스로 꽃피게 된다. 물론 보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전염병에 대한 공포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메디치가에서 가장 예술과 인문학에 많은 후원을 한 사람은 로렌초 메디치였다. [도판 4] 일명 ‘위대한 로렌초’라 불리는 그의 모습을 르네상스의

화가인 바사리가 초상화로 남겼다. 상념에 잠긴 듯한 옆모습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와 연극 가면 등이 함께 그려져 있어서 고대 문화를 부활하고자 한 르네상스의 정신을 로렌초가 이루어갔음을 보여준다. 바사리는 뛰어난 화가일 뿐 아니라 ‘르네상스 미술가 열전’이라고도 불리는 르네상스 시기 화가, 조각가, 건축가 등 다양한 예술가의 일생과 예술 작품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었다. [도판 5] 방대한 양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현대에도 들어볼 수 있다. [도판 6]

화려한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우게 된 이면에는 흑사병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었다. 사실 여유있는 가문뿐 아니라 시민들도 흑사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종교화나 조각상 등을 갖고 싶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수도원이나 성당에 기부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아 각 지역의 성당과 수도원에는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이 가득 차게 되었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풍부한 자본이 지원되면서 르네상스에는 훌륭한 대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더욱 활짝 피울 수 있었다. 위기가 기회라는 다소 상투적인 말처럼 어찌면 중세 유럽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의 유행은 르네상스라는 화려한 시기의 기반이 되었다.



KOOMBANK GALLERY

사진 중심으로 문화를 탐하다 구박갤러리

박나무 자유기고가

대부분의 사람이 카메라를 손에 들고 다닌다.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옛날이라면 승용차 한 대 값은 쥐야 구입할 정도의 고성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도 늘 붓을 들고 다니진 않을테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마이크를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진은 그것을 취미나 직업으로 하지 않아도 저마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또 찍힌다. 이제 사진은 전문가의 놀라운 기술이나 직업인의 특별한 도구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쉽게 찍고 즐기는 생활이 되었다. 그렇다면 사진예술이나 관련된 환경들은 그에 걸맞는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디지털 시대를 맞아 필름 생산은 중단됐고, 사진을 인화하는게 아니라 모니터 속에서 순간순간 휘발되는지도 모른다.

구박갤러리. 보수동 한 칸에 사진을 매개로 한 공간이 문을 열고 여러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고 있다. 포토그래퍼 구박이 사진문화의 저변을 넓혀보자는 취지에 함께 하는 여러 분들의 마음을 모아 만든 소중한 공간이다. 구박의 본업은 신라대 광고홍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전직으로는 광고회사의 잘나가는 카피라이터였다. 지금도 사람들의 입가에 맴도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엘~지”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그는 포토그래퍼라는 자아에 대해 더 애정을 가진 듯 하고, 때문에 사진전도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물론 그의 전공이 사진과 무관하지 않고, 영상촬영과 편집 부문에서도 전문가임을 자타가 인정한다.



사진과 광고와 영상을 두루 섭렵하는 셈이고 보면, 학교 다닐 적에 국영수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은 친구를 보는 것 같다. 그에게 부족한 건 뭘까 찾아보고 싶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전시도 하고 같이 노는 공간을 언젠가는 만들고 싶었다 한다. 나아가 부산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꿈까지 갤러리에 배어있다. 계획은 원대하고 야무지나 시작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좋은 후보지가 나타나면서부터 고생은 시작됐다. 구박을 비롯한 지인들의 노동력이 밤낮 없이 차출됐고, 오래된 건물은 때마다 생각지 않았던 문제점을 드러내 예금통장을 곧 바닥내고 말았다. 녀 달여에 걸친 산고 끝에 갤러리는 지난 9월 1일 문을 열었다. 정봉채 작가를 초대해 <우포의 시간>전을 가졌고, 전국의 사진가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이어갔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진 찍는 아무개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광주에서 사진찍는 거시 기입니다” 초면이기도 하고 구면이기도 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진과 사진예술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가들의 사랑방..., 구박이 그리던 모습이다.

전시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사진작가들에게 무료전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작가들의 사진을 학연이나 지연의 간섭 없이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로 선정해 대관료 한 푼 받지 않고 전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사진전을 위해 준비할 것들, 이를테면 인쇄를 위

한 링크의 선택, 인쇄지 종류에 따른 장단점, 사진의 사이즈, 액자 선택, 도록 인쇄, 판매와 관련한 과정 등 신진작가로서는 알기 힘든 것들을 죄다 무료로 컨설팅해준다. 이 심사의 관문을 처음 통과한 김대일 작가의 전시가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후 대관신청을 받을 예정이기도 하지만 한국 최저의 대관료를 예정하고 있다. 임대료는 고박고박 나갈 것이다. 구박에게 부족한 것은 세속적인 셈법이다.

“사진은 기다림과 빛으로 그려내는 그림이다. 나는 사진도 적절한 값으로 예술시장에 잘 유통되길 원한다. 음악이나 그림 못잖게 어찌면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열정을 요하는 작업이 사진예술이다. 그래서 사진가라는 직업만으로도 당당히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구박갤러리는 그 바람을 일으킨 곳으로 기억되고 싶다. 사랑한다면 행동이 필요하듯이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진 사랑에 눈이 먼 구박은 꿈만큼은 야무지다. “12월엔 포토아트페어를 열 계획이다.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누구라도 와서 편히 즐기고, 펍 특별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고싶다. 옮겨올 수많은 누군가의 집에 따뜻하고 예쁜 사진이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구박의 실험은 시작되었고, 그 실험이 성공적이려면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하겠다. 저변이 탄탄한 건 좋은 일이다. 누구든지 사진을 찍는 환경이 사진예술에 대한 관심과 그 수준을 높이는 촉매였으면 하는 바람을 더해본다.

- 운영시간/오전 11:00~오후 7:00(월요일 휴무)
- 문의/구박갤러리 010-6608-6899(부산시 중구 보수대로 110)



Turn Toward Busan

지휘 김봉미



바리톤 허종훈



바이올린 임병원



장고 민영치



소프라노 박희정



사회 손지현



부산내셔널필하모니오케스트라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2021 평화물결

2021. **11.11** (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전석무료 |

지휘 김봉미 / 사회 손지현 / 소프라노 박희정 / 바리톤 허종훈 / 장고 민영치 / 바이올린 임병원 / 연주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 주최 | 부산일보사 |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문화회관 | 후원 | BNK 금융그룹 | 공연문의 | 부산일보사 051)461-4436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선착순 500매 배부 / 1인 2매 제공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INVITATION TO THE ARTS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방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토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늦가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
관객과 만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장 나들이하기 좋은 늦가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우선 11월 4일 열리는 제58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통찰력 있는 음악성과 견고한 연주로 주목받는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홍민수가 리스트 특유의 현란한 피아노 기교가 유감없이 발휘된 피아노 협주곡의 걸작,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도 11월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11월 26일 열리는 제581회 정기연주회에서 양성원은 가장 시적이며 사색적인 작품으로, 첼리스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곡으로 꼽히는 슈만의 '첼로 협주곡 가단조 작품 129'를 들려준다.

이밖에 평소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었던 어린이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한 맞춤 프로그램 '부산시향의 우리 아이 음악회'는 11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오전 11시에 펼쳐지며,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대가 적어 낯설 수 밖에 없었던 현대음악을 소개하는 '심야음악회'는 12월 4일 늦은 저녁 9시에 만날 수 있다.

Busan Symphony Orchestra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지휘 이민형

피아노 홍민수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고 2017년 한국인 최초로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은 피아니스트 홍민수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동시대 작곡가 정수란의 창작곡 '탈춤'을 시작으로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1번', 그리고 올해로 탄생 180주년을 맞는 낭만주의 시대 체코의 국민음악가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을 들려준다.

첫 곡인 작곡가 정수란의 '탈춤'은 이번에 세계 초연으로 선보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위촉곡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탈춤 중 하나인 봉산탈춤에 사용되는 리듬 소재를 근간으로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살아가는 불안한 현대인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 작곡가 정수란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작곡 전공)을 졸업하고 도미,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가우데아무스 국제 작곡콩쿠르, 동경 피아노 듀오 작곡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안티스티몽, 향사회, 부산작곡가회, 창작합창 21, 영남작곡가회 회원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협연자로 관객과 만나는 홍민수는 2011년과 2014년, 페루치오 부조니 콩쿠르에서 2회 입상하고 2011년 콩쿠르 당시에는 리스트 협주곡 특별상도 수상한 바 있다. 만 9세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데뷔한 홍민수는 그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독주 및 협연, 실내악 무대를 가져오면서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우리아이 음악회

11월 11일-12일 목-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

지난 2019년 첫 선을 보인 '부산시향의 우리 아이음악회'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곡으로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면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와 눈사람과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아이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엮은 하워드 블레이크의 '스노우맨(The Snowman)'을 통해 어린이들을 클래식음악의 세계로 이끈다. 특히 하워드 블레이크의 '스노우맨'은 1982년 상영된 동명의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에 수록된 음악으로, 특히 눈사람과 하늘을 나는 소년의 신나고 환상적인 기분이 느껴지는 주제곡 '워킹 인 디 에어



(Walking in the Air)로 우리에게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상과 연주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연극배우 박찬영이 내레이션 맡아 어린이 관객들에게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부산시립극단 창단멤버로 입단하여 정년퇴임한 연극배우 박찬영은 현재도 왕성하고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선이 굵으면서도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브람스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첼리스트 양성원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슈만의 '첼로 협주곡 가단조 작품 129'에 이어 늦가을의 서정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슈만의 '첼로 협주곡 가단조 작품 129'는 첼로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슈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걸작으로,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첼로 독주와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교감이 특징이다. 협연자 양성원은 국제적인 솔리스트로서 그리고 실내악 전문 연주자로서 링컨 센터, 카네기 홀, 워싱턴DC의 테라스 극장, 파리의 살플레렐, 샬 가보우, 일본의 오페라 시티홀 등 세계 굴지의 유명 공연장에서의 연주로 호평을 받았다. EMI를 통해 베토벤 첼로 소나타, 코다이 작품집, 바하 무반주 조곡 앨범 등을 출판하였고 현재는 유니버설 뮤직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슈베르트 작품집, 드보르자크 협주곡, 바흐 무반주 전곡 등 다수의 음반을 출시하였다. 2006년 올해의 예술상, 제4회 대원 음악연주상, 제1회 객석예술인상 수상 및 프랑스 문화훈장 슈발리에를 서훈 받은 양성원은 프랑스 'Festival Beethoven de Beaune' 음악감독과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페스티벌 오원'(2011년~현재) 예술감독으로, 전 세계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양성원은 현재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이자 영국 런던의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RAM)의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4번'은 우수에 찬 선율과 고독한 정서가 깃든 작품으로 유독 가을에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50대에 접어든 브람스가 느꼈을 고독과 체념 등을 깊은 우수로 표현한 작품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고전주의자'로 불리기도 했던 브람스답게 고전주의적 방식으로 작곡된 곡이다.



지휘 최수열



첼로 양성원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12월 3일 금요일 오후 9: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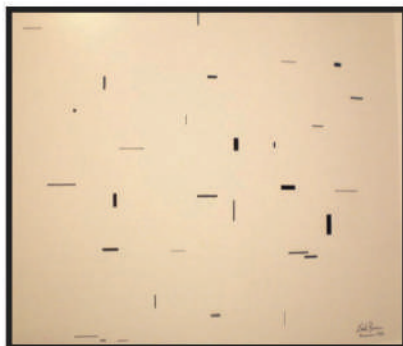


기존 공연시간의 틀을 깬 저녁 9시, 실험적인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을 새로운 음악세계로 안내하는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는 이번에는 음악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동시대 음악인 현대음악을 소개하는 자리로, 한밤의 낭만과 실험적인 현대음악이 빚어내는 특별한 감상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미니멀리즘 음악’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심야음악회에서는 음악의 태동 이래 가장 이질적 장르 중 하나인 ‘그래픽 노테이션’을 소개한다. ‘그래픽 노테이션’은 도형과 선을 자유롭게 배치해 음악을 표현한 악보로, 비단 도형뿐만이 아닌 문자나 그림 등 일반적으로는 악보에 사용되지 않는 기호들을 이용해 음악을 표현하고 있다. 이 획기적인 작곡가들은 오선지로 그려진 악보에는 자신들의 음악을 담을 수 없다며 이 현대적인 미술화화 요소를 사용하여 악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연주해야 할 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악보들은 작곡가의 연주 방식에 대한 친절함(?) 설명과 그림으로 구성되면서 연주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는 우연성의 음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극히 현대적이고 복잡해 보이는 이 장르는 사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존재하였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직관적인 장르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래픽 노테이션’ 붐을 일으킨 얼 브라운의 ‘1952년 12월 (December 1952)’과 르네상스 시대의 ‘그래픽 노테이션’이라 볼 수 있는 보데 코디에르의 시각 음악 ‘Belle, Bone, Sage(편곡)’, 그리고 미학적인 궁금증을 일으키는 버그스트롬 닐센의 작품 ‘Towards An Unbearable Lightness’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무대에서는 경성대학교 미술학과 학과장이자 ‘기관의 순환’, ‘장기의 소리’ 등 사운드 아트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온 심준섭 교수와의 협업으로 하나의 실험적인 작품을 관객들과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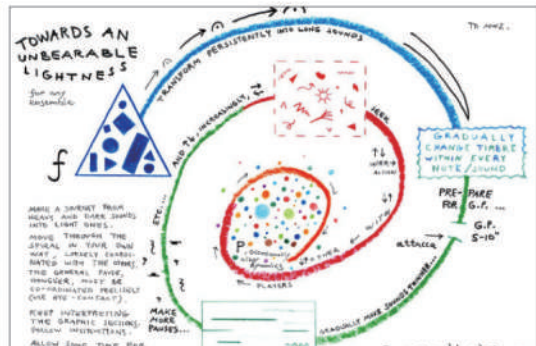
이번 심야음악회는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트러스트’, 런던 어니스트 리즈 재단의 ‘젊은 지휘자 상’,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의 ‘로버트 지휘자 상’을 수상한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를 맡아 현대음악의 특별한 세계로 안내한다.



Earle Brown / December 1952



Baudouin Cordier / Belle, Bone, Sage



Bergström-Nielsen / Towards An Unbearable Lightness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양탄자타고 음악여행II



- '여행'이라는 테마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음악여행을 떠나는 특별한 무대 '양탄자타고 음악여행II'가 11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지난 2019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5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양탄자타고 음악여행'의 이어 두 번째 무대로 1부 '먼 나라 여행', 2부 '한국 여행'에 이어 3부에서는 음악극 '날으는 양탄자'로 알라딘과 함께 '환상 여행'을 떠난다.

1부 '먼 나라 여행'에서는 시대를 거슬러 먼 나라로 날아가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크 작곡가 비발디(Vivaldi) 곡을 시작으로 힘차게 음악회를 연다. 유명한 음악가 라흐마니노프와 포레의 아름다운 곡들을 청아한 청소년 합창으로 감상한 후 포레의 후기 낭만시대에서 현실로 돌아와 한국여행을 이어간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경남지역의 전문연주자들로,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 Bellus Camerata Ensemble(대표 김연정)의 라이브 연주로 보다 풍성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2부 '한국 여행'에서는 영상음악으로 아름다운 부산을 만난

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경수(태평소), 송강수(모듬북), 이주현(쟁과리)의 태평소 경기 가락과 메나리 선율을 태평소의 시원한 소리와 모듬북, 쟁과리의 경쾌한 리듬으로 어우러지게 표현한 '바람의 소리' 연주로 한국전통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이어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합창계의 최고의 작곡가 우효원의 '모란이 피기까지는'는 혼성합창곡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위해 편곡, 의뢰한 곡으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다. 그 외에 '꽃 파는 아가씨'와 '강강술래' 또한 SSA(여성과 어린이) 버전으로, 우효원에 의해 재탄생된 곡들을 멋진 안무를 곁들여 선보인다.

3부 '환상 여행' 무대에서는 알라딘, 지니와 자스민 공주를 만나 신나는 안무와 함께 합창 음악극을 즐길 수 있다. 2019년에 큰 흥행을 불러일으킨 '알라딘' 영화 대세에 맞춰 음악극 '날으는 양탄자'는 제155회 정기연주회에 성황리에 올려졌고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앵콜 무대로 현악 앙상블의 반주 편곡과 음악 넘버가 더해지고 여기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의 새로운 각본과 연출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일 시 11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만 5세 이상 입장)
문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및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I Healing for You



지휘 이수은

- **합창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 지휘자를 초청, 관객들에게 색다른 무대를 선사하는 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 연주회’ 두 번째 무대가 11월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올 한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선한 구성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무대로, 지난 3월 이상길 지휘자에 이어 이수은 지휘자가 두 번째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다. 특히 이번 무대는 ‘Healing for You’라는 주제로 Comfort(위로), Peace(평안), Thanksgiving(감사), Love(사랑)를 주제로 한 다양한 편성의 합창음악을 선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힐링음악회로 진행된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줄곧 성장한 지휘자 이수은은 총신대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한 후 도미, 워싱턴 대학교에서 합창지휘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학시절 헨델의 ‘메시아’를 작곡가 6명이 현대 CCM 스타일로 편곡한 ‘Young Messiah’와 6명의 아프리카 작곡가가 편곡한 흑인 재즈 스타일의 ‘Soulful Messiah’를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이수

은은 5년에 걸쳐 ‘메시아’ 전곡을 우리 전통의 국악 스타일로 편곡, 분석한 작품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발표하며 정식 작곡가로서 미국 음악계에서 데뷔했다. 헨델 ‘메시아’의 Korean Version인 이 곡은 지난 2008년 고신대학교 설립 30주년 기념 축하연주회에서 세계 초연으로 연주됨과 동시에 음반으로도 발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고향인 부산으로 귀국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수은은 현재 울산장로합창단, 부산우리소리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1부 ‘Comfort(위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합창곡 중 하나인 에릭 휘태커의 ‘Lux Aurumque’을 시작으로 ‘가고파’(조혜영 곡), ‘내 안에 당신’(이수은 곡)을 들려주며 이어 ‘Peace(평안)’에서는 ‘Canon’(파헬벨 곡), ‘유랑의 무리(슈만 곡)’, ‘Thanksgiving(감사)’에서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주제곡인 ‘Nelle Tue Mani’, ‘고맙소’를 각각 여성합창과 남성합창으로 들려준다. 2부 ‘Love(사랑)’에서는 사랑스럽고 유쾌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아름다운 성악곡인 브람스의 ‘왈츠에 불인 사랑의 노래 작품 52’로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준다.

일 시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Turn Toward Busan 2021 평화물결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국제적 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2021'을 기념하는 <2021 평화물결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가 11월 1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열리는 '턴 투워드 부산'은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유엔군 전사자의 넋을 기리고자 그들이 안장되어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전 세계가 1분간 묵념할 것을 제안한 이래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되어 오고 있다.

'턴 투워드 부산' 기념행사로 매년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소프라노 박희정, 바리톤 허중훈이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무대를 아우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인 지휘자 김봉미는 2010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지휘콩쿠르에서 여성 최초로 수상, 음악계에 큰 화제를 낳았으며, 현재 베타필하모닉 예술총감독 겸 상임지휘자,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음악감독, 세계4대 오페라 페스티벌 음악 총감독으로 있다.

첫 곡으로는 역동적이면서도 화려한 행사의 서막을 알리는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으로, 이어서는 경성대학교 교수이자 뮤즈앙상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예술총감독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이 영화 '썬들러 리스트'의 메인 테마곡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바리톤 허중훈과 소프라노 박희정의 무대로, '산아'(신동수 곡),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동심초'(김성태 곡), '어머니께 말씀드리죠'(아돌프 아담 오페라 '투우사'), '입술은 침묵을 지키고'(레하르 오페라 '명량한 미망인')를 각각 솔로와 듀엣으로 들려준다. 바리톤 허중훈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로, 소프라노 박희정은 창원시립합창단 수석단원, 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산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1950년대 미8군 미군악대에 있던 존 반즈 찬스가 우리 민요 '아리랑'에 매혹되어 작곡한 한국 민요 변주곡(Variations on a Korean Folk Song)과 '오딧세이'(민영치 곡), '슬라브 행진곡'(차이콥스키)을 들려준다. 특히 '오딧세이'는 이 곡의 작곡자이자 타악연주자로 활동하는 민영치가 직접 설장구 협연을 맡아 박진감 넘치는 연주를 선사한다.

일 시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일보사, 부산광역시
입장료 무료(당일 현장 배부, 선착순 500매, 1인 2매 한정)
문의 부산일보사 461-4436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6회 정기연주회 판타스틱(Fantastic)



- 전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도 올 한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기 노력했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12월 2일 제66회 정기연주회로 2021년 마지막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고 삼육대학교 글로벌 영재교육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서현의 협연으로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표제음악의 완성자라 일컬어지는 베를리오즈의 대표작 '환상교향곡'을 들려준다.

첫 곡인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북유럽 특유의 서늘한 정취와 함께 낭만적 열정을 토로하는 오케스트라와 독주 바이올린의 앙상블이 특징인 곡이다. 자신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던 시벨리우스는 그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기도 한 이 곡을 통해 바이올린이 가진 다양한 기교를 부각시키면서 오늘날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누구나 도전하고픈 대작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서현은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과 섬세한 테크닉을 겸비한 바이올리니스트로 현재 서울 비르투ोज 챔버오케스트라, 피아노트리오 여운 단

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를 실기 수석으로 입학하여 실기 수석으로 졸업한 이서현은 이후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도미, 인디애나 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현악과 전체 1호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찍이 국내 우수 콩쿠르에서 이상하여 재능을 인정받은 이서현은 2015년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콘서트 홀에서 주최한 개인 독주회에서 5번의 커튼콜과 함께 극찬을 받았으며 미국 유학 시절 실력있는 음악인을 선출하는 오디션에 대상으로 우승하여 뉴욕 카네기 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이서현은 그동안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악장, 원주시립교향악단 객원악장,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1객원수석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등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베를리오즈의 대표작이자 19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환상교향곡'은 당시 인기 절정의 여배우인 해리엇 스미드슨을 짝사랑했던 베를리오즈가 짝사랑의 비통함을 느낀 후 그 감정을 강렬하게 그린 곡으로, 그의 대담한 오케스트레이션은 이후 많은 작곡가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일 시 12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가을 감성을 자극할 가을 연극축제



제59회 부산예술제 '秀秀한 연극 초청전'

11월 3일(수)-4일(목) 오후 7:30
6일(토)-7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초대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rter.or.kr

연극 애호가들의 가을 감성을 자극할 연극무대가 부산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우선 11월 3일부터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는 제59회 부산연극제 '秀秀한 연극 초청전'이 열린다. 부산연극협회가 매년 봄에 개최되는 부산연극제와 더불어 가을을 대표하는 부산의 연극축제로 만들고자 열어온 '秀秀한 연극 초청전'은 그동안 지역극단의 수준 높은 창작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왔다. 올해 초청전에서는 극단 여정 '복녀씨 이야기'와 극단 누리에 '개 짚는 날'이 무대에 오른다. 11월 5일부터 부산지역 소극장에서는 부산소극장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제9회 부산가을소극장페스티벌'이 시작된다. 부산지역 6개 극단의 창작극과 소극장 우수 창작희곡 공연, 통영 극단 벽수골의 지역교류 초청공연 등 8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연극공연을 관람하기에 더 없이 좋은 가을 날,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가보자.

'秀秀한 연극 초청전' 첫 번째 작품인 '복녀씨 이야기'는 국제결혼으로 부산에 정착한 몽골의 이주여성 이야기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은 많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으로 대할 뿐이다. 몽골어로 '행복'을 뜻하는 몽골 아가씨 자르갈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자갈치시장의 생선가게 사장 덕구씨에게 시집온다. 자르갈은 우연히 자갈치 시장의 트리블메이커 복녀씨와 싸우게 되고, 좌충우돌 만남이 어가던 두 여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극단 여정의 '복녀씨 이야기'는 11월 3일과 4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작 김지식 연출 김태호 출연 이현옥, 정소희, 이재영, 강정희, 박명정, 손수경

극단 누리에의 '개 짚는 날'은 가족의 유일한 돈벌이 수단인 개농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사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1년 제4회 전국창작희곡공모 은상, 2012년 제30회 부산연극제 연출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2012년 초연 이후 초청공연과 재공연을 통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결합력이 많이 상실된 요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내용으로 공연은 11월 6일과 7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작 이경진 연출/강성우 출연 이재찬, 최주영, 이희선, 양경문, 장선아, 유지현





제9회 부산 가을소극장 페스티벌 '명작 이바구'

11월 5일(금)-2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지역 소극장
작품별 전석 2만원
(BIG4 4만원, BIG8 7만2천원)
부산소극장연합회
723-2013, 010-3132-4160

제9회를 맞는 올해 '부산가을소극장페스티벌'에서는 남아공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아돌 가드를 비롯해 해롤드 핀터, 머레이 스위스갈, 프란츠 카프카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및 작품을 모티브로, 부산 지역의 특색과 배경을 활용하여 명작과 만나는 '명작 이바구' 열전으로 펼쳐진다. 부산지역 6개 극단의 무대와 올해 '221 여름창작낭독무대'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극단 아이컨택 '몽키트랩(Monkey Trap)', 그리고 타 지역 예술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지역교류 초청공연으로 통영의 극단 벼수골이 부산 관객과 만난다.

극단 맥 '내가 조선의 카르멘이다' 5일(금)-7일(일) 소극장 6번 출구

자유로운 방랑자 카르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군사 돈 호세와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조선 최고의 검객, 과연 돈 호세의 비극적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원작 프로스페르 메리메 '카르멘' 각색, 연출 이상미

드렁큰씨어터 '담' 7일(일)-9일(화) 열린아트홀

1938년 일제 강점기, 처참한 감방생활을 이어가는 죄수번호 1017과 914. 장기자랑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연극을 준비하는 1017, 그리고 그와는 다른 생각 914, 그들의 엇갈린 생각은 어디에 닿게 될까.
원작 아돌 후가드 '아일랜드' 재구성, 연출 윤준기

극단 아이컨택 '몽키트랩' 9일(화)-11일(목) 나다 소극장 [소극장 우수창작희곡 공연]

젊은 부부인 벨라와 조지, 그리고 벨라의 여동생이 함께 운영하는 술집에 어느 낯선 이가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오면서 그들의 고민은 시작되는데...
원작 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 '원숭이 손' 재창작, 연출 박용희

극단 아센 'Pension 누구나' 11일(목)-13일(토) 하늘바람 소극장

부산 송정 바닷가 변두리의 펜션 '누구나'에 장기투숙 중인 주인공 나태환, 그리고 어느 날 난데없이 나타난 황금동과 강도희. 나태환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친절과 생일잔치를 받고서는 쥐도새도 모르게 두 사람에게 납치되는데...
원작 해롤드 핀터 '생일파티' 재구성 김혜숙 연출 호민

극단 벼수골 '퓨전 사랑 소리나다' 11월 13일(토)-14일(일) 용천지랄 소극장 [지역교류초청공연]

외롭고 고독한 남자는 가끔 거리를 배회하다 거리에서 마주친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 순간 자신에게서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구애를 시작하는데...
작 정세혁 연출 정창석

극단 등나무 '책방지기' 15일(월)-17일(수) 레몬트리 소극장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전국의 지식인들로 북적이는 보수동. 그 곳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덕배와 미숙,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극단 어니언킹 '해안도로' 17일(수)-19일(금) 공간소극장

위험한 커브길 옆에서 종종 일어나는 교통사고 덕분에 생계를 꾸려가는 두 남매. 둘은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보내고 교통국장이 나타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원작 탄크레드 도르스트 '위험한 커브' 각색, 연출 전상배

부두연극단 '변신(變身) 변심(變心)' 11월 19일(금)-21일(일) 액터스 소극장

부산의 연극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 상업은 카프카의 '변신'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날 상업은 잠을 자다 깨어나게 되고 곧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있는 자신을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원작 프란츠 카프카 '변신' 재창작 김지숙 연출 안준영



한국 첫 원전 전곡 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 조영미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천재 작곡가와 그 시대 가장 핫한 극작가가 만나 희대의 오페라가 탄생했다. 한국 최초로 부산에서 원전 전곡이 무대에 오른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이야기다. 약 3시간 20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있었지만 모차르트 음악의 위대함과 더불어 부산 오페라의 현재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대표작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지금도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로 꼽히지만, 사실 오페라 초심자에게 그리 쉬운 작품은 아니다. 원작보다는 단순화됐다고는 하지만 작품 속에 은유와 풍자가 겹겹이 쌓여있고, 11명에 이르는 등장인물의 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오페라의 힘은 단연코 모차르트의 음악이다. 극 전개가 지루해질 때쯤 모차르트의 음악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든다. 희극적이었다가 우아해지고, 애절했다가 또 피식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음악의 힘이다. '피가로의 결혼'은 아리아와 이중창이 반반 비중으로 구성된 완급 조절이 뛰어난 데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담고 있는 완성도 높은 극이다.

모차르트는 생전 22개의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완성한 곡은 17개다. 이 중에서도 '피가로의 결혼'은 '돈 조반니', '마술피리', '코지 판 투테'와 함께 모차르트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 작품들은 모두 1786년~1791년 사이에 작곡돼 모차르트 음악 인생의 황금기에 작곡됐다고 볼 수 있다. 1786년 오스트리아 빈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피가로의 결혼'은 대성공을 거뒀다. 지금 현대인들이 현실을 잘 담은 드라마와 영화에 열광하듯, 당시 관객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당시에 국왕이 앙코르 제한령을 내렸을 정도로 '피가로의 결혼'은 공연이 끝나기만 하면 관객들이 앙코르를 끝없이 외치는 오페라로 유명했다.

이처럼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탄탄한 원작(프랑스 출신 피에르 보마르셰의 희극 <피가로의 결혼>, 1784),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극작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로렌초

Review



다 폰테의 각본, 모차르트의 환상적인 음악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원작 희극은 작가 보마르셰의 경험이 '피가로'라는 인물에 투영돼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시계공 집안에서 태어난 서민이었던 보마르셰는 시계추 제어장치를 발명해 많은 돈을 벌었고, 점차 궁정 감독관, 음악교사, 출판업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신분이 상승했다. 하지만 끝내 귀족은 될 수 없었던 그의 상황을 통해 '피가로 3부작'(<피가로의 결혼> <세비아의 이발사> <죄를 지은 어머니>)이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원작은 상당히 풍자적이고 귀족의 타락과 특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이에 국왕의 노여움을 사 빈에서도 상영이 금지됐다. 하지만 로렌초 다 폰테가 민감한 부분은 다 빼고 남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극을 쓰면서 상연 허락을 받았다. 당대 최고의 극작가와 최고의 음악가가 만났으니 실패하는 게 더 이상했을 오페라가 바로 '피가로의 결혼'이다.

부산 오페라의 가능성 엿보어

10월 15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한국 최초로 '피가로의 결혼' 원전을 전곡 공연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재)부산문화회관이 2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으로 코로나19 탓에 관객과 만나는 일은 좀 늦어졌지만, 출연진의 대부분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피가로'役に 캐스팅된 바리톤 이광근과 안세범, '수잔나'역의 소프라노 박하나와 박현진 모두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꼽힌다. 마지막 날 공연에서 이광근과 박하나는 지금까지 부산 무대에서 보여줬던 역량을 무대에 다 쏟아부은 느낌으로 호연을 펼쳤다. 이번 작품 속 감초이자 어쩌면 핵심 키를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인 '케루비노'역의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역시 시동 '케루비노'를 훌륭하게 해석해냈다. 지휘자 윤상운의 지휘로 연주하는 카메라타 부산이 말았는데, 원곡의 감동을 잘 살리면서 세련된 연주를 보여줬다. 합창은 부산오페라합창단이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출신의 전진 지휘자의 지휘로 함께 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출범을 앞두고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힘을 합쳐 모차르트의 원전 공연을 해냈다는 점에서 부산 오페라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



으로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문을 열면 더 많은 부산 출신의 아티스트가 활약할 기회가 생길 것이고, 부산 시민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부산에서 더 많은 오페라 레퍼토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테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공연은 훌륭한 예습이 아니었나 싶다.

다만, 이번 공연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정된 예산 때문이겠지만 다소 밋밋한 세트 구성과 세트를 통한 장면 전환이 많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세트 구성 변화나 소품 활용이 적절히 이뤄지면 관객의 집중도도 올라가고 극의 내용도 훨씬 잘 살릴 수 있는데 아티스트의 개인기에 많이 의존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의상은 극의 내용에 맞게 잘 갖춰져 오페라를 보는 관객들에게 캐릭터 해석에 도움을 줬다. 아무래도 내용 파악을 위해 자막을 읽는 관객에게 잘 와닿도록 현대에 맞춘 설득력 있는 비유를 적절히 한 점에도 '위트 점수'를 주고 싶다.

'피가로의 결혼'을 필두로 '부산오페라워크'가 시작됐다. 처음으로 부산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영화의전당, 금정문화회관에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 팬에게는 다양한 장소에서 오페라를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한 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부산표 오페라' 제작 역량을 키우고 꾸준히 부산 관객에게 선보인다면 부산에도 오페라를 즐기고 원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 믿는다.

주목할 만했던

<주목!>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스타 프로젝트 <주목!>

◆ 허은 연극평론가
전 경성대학교 연극과 교수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실감 나는 기회였다. 이제 일상화되어버린 코로나19 때문에 우여곡절 많은 공연 예술계의 전반적인 우울한 상황은 부산 공연 예술계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공연 자체의 존폐가 논의되었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연기되고 축소되었던 부산시립극단의 다양한 기획은 이제야 겨우 빛을 보았다.

체홉 특집에 이어 부산시립극단의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가 10월 7일부터 10월 23일 까지 하늘바람 소극장에서 개최되어 이제 막을 내렸다. 대·중극장에서 주로 만났던 부산시립극단의 공연을 소극장에서 만났다. 아마 관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한편으로는 유쾌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물론 시립극단을 통해서 관객이 얻을 수 있는 그것은 평소 잘 접할 수 없었던 대작의 관람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에 시립극단 배우들의 연기의 참모습과 다양한 연출, 스텝의 능력을 오롯이 볼 수 있는 뜻밖의 기회였기에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다.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액자 속의 그림을 그 속에 들어가 연극의 또 다른 모습을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백조의 노래

원래 이 작품은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로 출발하였다. 체홉은 이 소설을 20분 정도의 짧은 연극으로 다시 개작하여 발표하였다. 짧은 분량으로 만들어진 구성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색은 체홉 자신의 희곡과 다른 작품 일부분을 활용하여 각색하고 등장인물을 모두 여성으로 교체하여 노배우와 배우 지망생인 젊은 세대의 여성이 무대에 오른다. 평생을 연극배우로 살아와 이제는 ‘늙은 여배우’가 되어버린 바실리카 바실리에브나(이현주)와 배우를 꿈꾸는 젊은이니까 이바노브나(안예은)가 모두 퇴근한 텅 빈 극장에서 만나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는 바실리카와 벅찬 미래를 그려 보면서도 불안한 젊은 배우는 대화를 통해 서서히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동료의식이 싹트게 된다. 어쩌면 극단적일 수도 있는 두 사람의 관계는 ‘배우’, ‘연기’라는 축매를 통해서 인생의 참모습을 확대 재생산해낸다.



백조의 노래



스트립티즈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오랜만에 소극장 무대에서 보는 이현주의 연기 속에서 이제까지 형식적이고 정형화되었던 선임 배우의 모습이 최소화된 새로 탄생한 배우의 모습을 보았고 다소 어눌하지만, 상대 배우와 호흡을 맞추어가는 안예은의 뜻뜻한 연기는 상쾌한 냄새를 풍긴다. 성격 구축을 위한 두 배우의 노력이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 보였다. 연출(권지현)의 연출력은 이들 두 배우와 무대를 의미있는 성격과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소품이나 소도구, 등·퇴장로의 적절한 활용은 무대에 생명력을 더했다. 관객과의 진정한 소통이 연극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혹은 공간의 유의미한 활용이 무대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 공연이었다.

스트립티즈(Striptease)

스타 프로젝트 두 번째 공연인 스트립티즈(Striptease)는 폴란드 극작가 슬라보미르 므로체크가 1961년도에 출간한 희곡이다. 구태어 연극 경향으로 따진다면 부조리극에 해당한다. 부조리극에서 흔히 쓰이는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언어의 부조리이며 다른 하나는 상황의 부조리다. 이 작품의 집필 시기나 작품 배경을 고려한다면 상황의 부조리다. 그런 의미에서 이오네스코의 언어의 부조리와는 차이가 있다. 상황의 부조리라는 면에서 헤롤드 핀터의 <생일 파티>와 유사하다. 작품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 바로 지금의 상황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이곳의 어떤 인물 창기(황창기)와 은희(김은희)로 치환되었다. 이제까지 공연이 남자만 혹은 여자만으로 구성되었던 작품이었다면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진다. 그들은 우리가 늘 보아왔던 혹은 지금도 그러한 '외부적 시스템의 폭력에 대응하는 지식인의 자세'를 가진 인물이다. 자칫 난해하거나 지루할 수 있는 논리적 대사를 원작자는 골계미(滑稽美)를 통해 웃음을 주게 하였고 연출과 각색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언어나 상황을 대입하여 현실성과 재미를 준다. 이 무대가 만들어 내는 풍자와 골계미는 현실 비판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관객에게 다가간다. 전면 우측에 배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가끔 설명적 영상이 보이는 것은 어색하지만, 무대 중앙 사각의 구조물에서 제공되는 영상물은 관객의 이해를 돕고 몰입감을 주기에 적절했다. 영상이 지닌 사실적 자극을 떠나 지금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부조

리한 상황에 대한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소극장 무대에서 연기자는 별거벗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황창기와 김은희의 연기는 긴장과 이완을 수시로 반복하면서 작품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절하게 전하고 있다. 다만 황창기의 표정이 상황에 따라 조금은 더 섬세하게 표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극장 무대에서 감추어진 세밀한 부분은 소극장에서는 가감없이 그대로 보이기에 감정에 따라 팔색조처럼 변하는 연기자의 얼굴도 보고 싶다.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는 헨리 파렐이 <What ever happened to baby Jane?>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처음 발표하였다. 로버트 올드리치가 연출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편에 뽑히기도 했다. 원작 자체가 그만큼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품이란 뜻이다.

은퇴한 여배우 제인(염지선)과 블랜취(오희경), 가정부 바바라 스티트(김은옥), 기회주의자인 제인의 피아노 반주자(에드윈 플래그(서보기))가 등장인물이다. 늙어가는 은퇴한 왕년의 인기 여배우 자매가 쇠락한 저택에서 숨겨진 교통사고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갈기갈기 파괴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면서도 삶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동시에 만든다. 과거와 현재가 역순으로 진행되면서 관객의 극 중 몰입에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제공하지만, 영화적 현실을 무대적 현실로 만드는 과정의 어려움이 보인다. 특히 등·퇴장선을 지배하는 장치와 소도구의 왜소함과 세련되지 못한 멋움림이 방해해 주기도 한다. 몇 가지 소품(꽃, 편지, 접시에 담긴 음식물 등)을 이용한 연기자의 약속된 듯한 연기는 어색해서 몰입을 방해한다.

무대의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극 중 성격에 최대한 다가가지 하는 연기자들의 노력은 극에 대한 기대감을 그나마 유지 해주었다. 길거리로 설정된 무대 전면의 활용은 각색 과정이나 연출 과정에서 생략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지속적 몰입감을 유지하기에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블랜취의 격리된 2층방과 계단의 설정 역시 부족했다. 소극장 공연 작품 선택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한 작품이었으나 연기자의 성격 몰입은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클라라 주미 강&김선옥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11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K-클래식 대표주자로 꼽히는 젊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옥의 듀오 리사이틀.

지난 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와 녹음에 힘을 쏟았던 클라라 주미 강과 김선옥은 올해 9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으로 채워진 신보 발매와 더불어 발매 기념 전곡 연주회를 가지며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4번, 제7번, 제9번을 들려준다.

김윤희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11월 2일 화요일 오후 8: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윤희 0507-1330-9839, 010-6516-9838



공임없이 연구하고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윤희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재학 중 도미, 신시내티 음악대학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윤희는 귀국 후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관현악 지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일찍이 국내외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그 자질을 인정받은 김윤희는 이번 무대에서 바흐와 이안 클라크, 쿨라우, 그레그 파티오와 작곡가 양성남, 백은숙 등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을 통해 플루티스트로서의 음악성과 기교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전통적인 플루트 연주를 넘어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는 무반주 플루트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일 시 |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7년 한국인 최초로 네덜란드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 입상하는 등 화려한 수상경력과 함께 만9세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무대로 데뷔한 피아니스트 홍민수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위촉곡인 작곡가 정수란의 '탈춤'을 세계 초연으로 들려주며,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1번'과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을 연주한다.

- 지휘/이민형
- 협연/피아니스트 홍민수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일 시 | 11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숨겨진 3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감동과 음악이 있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최후의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라흐마니노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라흐마니노프'는 라흐마니노프가 슬럼프에 갇힌 3년간의 시간 속에서 정신의학자 니콜라이 달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완벽한 가창력과 섬세한 연기력으로 초연무대부터 함께 해온 박유덕(라흐마니노프), 정동화(니콜라이 달)가 호흡을 맞춘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양탄자타고 음악여행 II

일 시 | 11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만5세 이상 입장)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여행'을 테마로 음악여행을 떠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지난 2019년 제155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양탄자타고 음악여행' 두 번째 무대로 1부 먼 나라 여행, 2부 한국 여행에 이어 3부에서는 음악극 '날은 양탄자'로 알라딘과 함께 환상여행을 떠난다.

특히 '날은 양탄자'는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감독의 새로운 각본과 연출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 지휘/김수현(수석지휘자)
- 특별출연/김경수(태평소), 송강수(모듬북), 이주현(쟁과리),

테너 양수배 독창회

일 시 | 11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양수배 010-6388-6919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성악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테너 양수배의 무대.

경성대학교 성악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현재 오순도순 우리가곡 부르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수배는 그동안 네오필 오케스트라, 아르투스 무지카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100여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났다.

이번 무대는 지난 2018년 첫 독창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독창회로, 우리 귀에 친숙한 국내의 가곡 및 민요,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릴 예정이다.

- 피아노/강미
- 장구/여성자
- 우정출연/바리톤 배용

이보미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섬세한 소리와 특별한 음색, 풍부한 음악성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피아니스트라는 평가를 받는 피아니스트 이보미 귀국 독주회.

연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도독,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만하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만점 졸업한 이보미는 일찍이 국내 유수 콩쿠르를 석권하며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독일 유학시절 스페인 Campilos 국제콩쿠르 semi-finalist, 이비사(Ibiza) 국제콩쿠르 Premio especial 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서 그 음악적 실력을 입증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예술영재교육원 실기 지도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이보미는 이번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전문연주자와 교육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및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 Healing for you

일 시 |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합창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 지휘자를 초청, 관객들에게 색다른 무대를 선사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두 번째 무대. 울산장로합창단, 부산우리소리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은 지휘자가 관객과 만나는 이번 무대는 특히 'Healing for you'라는 주제로 Comfort(위로), Peace(평안), Thanksgiving(감사), Love(사랑)를 주제로 한 다양한 편성의 합창음악을 선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힐링음악회로 진행된다.

이수은 그동안 노엘합창단, 토브 남성합창단, 부산극동방송국 전속 FEBC Singers 상임지휘자, 울산시립합창단 객원지휘자로도 활동해왔다.

제4회 나눔행복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나눔행복합창단 525-9100



부산와인스쿨 CEO 비즈니스과정 졸업생들로 구성된 나눔행복합창단(단장 송하영) 정기연주회. 지난 2017년 10월 창단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나눔행복합창단은 지금까지 3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며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한편 수차례 지역 소외계층 나눔봉사 및 공연을 통해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과 친목을 다지며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한편 수차례 지역 소외계층 나눔봉사 및 공연을 통해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 지휘/권영기 • 반주/김경미
- 특별출연/김성빈(바이올린), 왕기현(소프라노),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루체살레 제2회 정기연주 사랑에 살고 예술에 살고

일 시 |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루체살레 010-5015-9215



국립창원대학교 김유성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정삼규 성악가들로 창단한 루체살레의 두 번째 정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비제 '카르멘', 조르다니 '안드레아 쉐니에' 등 세 편의 오페라를 주요 아리아와 함께 들려주는 오페라 갈라 무대로 마련된다.

- 소프라노/김유성, 김유진, 김시하, 조윤정, 정수정, 오예은
- 메조 소프라노/양송미
- 테너/장진규, 김지호, 김준연
- 바리톤/나현규, 유용준
- 베이스바리톤/심준호
- 피아노/심하정, 권수빈
- 해설/이현서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아이 음악회

일 시 | 11월 11일-12일 목-금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평소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었던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우리아이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고 배우 박찬영의 나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소년과 눈사람과의 우정을 그린 아름다운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더 스노우맨(The Snow Man)'을 영상과 함께 들려준다. '더 스노우맨'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레이먼드 브릭스의 동명의 동화를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Walking in the Air' 등 하워드 블레이크의 곡으로도 유명하다.

- 지휘/이민형 • 나레이션/박찬영
- 특별출연/황민혁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일 시 |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14일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극단 네이호우 010-9984-2893



지난 2019년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사업 선정작, 2021년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재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뽑힌 창작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2017년 창단 후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감각과 열정이 있는 극단 네이호우의 작품으로, 1918년 동경에서 열린 조선인 웅변대회에 참여했다 일본경찰에 체포당하고 조선 종로경찰서 경부인 아버지에게 끌려와 강제로 출판사에 취직하게 된 최우식을 주인공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리듯 독립운동을 하게 된 최우식을 통해 전형적인 영웅 스토리가 아닌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블랙코미디로 제작된 작품이다.

- 작, 연출/차승호 • 작곡/이영재
- 특별출연/이태홍

아르떼음악회 제6주년 정기연주회 가을의 노래

일 시 |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아르떼음악회 010-5035-5020



부산, 영남지역의 음악 전공자들과 음악애호가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의 장, 아르떼음악회 제6주년 정기연주회.

'가을의 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삼도, 김옥순, 박기연, 박순덕, 안미원, 원수경, 이순옥, 정정숙, 조민화, 진주희, 최영진
- 메조소프라노/이경희, 임명자, 최유진
- 테너/김이수(회장), 양수배
- 바리톤/박동석, 배용, 한성권
- 피아노/김정훈, 함종윤
- 반주/민유숨 • 안무/송영숙

2021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일 시 |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문의 |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867-0501



부처님의 법음을 통해 포교에 앞장서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가 매년 마련해온 2021 부산불교합창제.

이번 무대는 백규진 지휘자가 총연출을 맡았으며,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범어사, 삼광사, 동명불원

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로 마련되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총연출, 지휘/백규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The Solist

일 시 |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4:00,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마련한 무대 '유망주 음악회-The Solist'.

다양한 방식의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황주예, 정지원, 조명환, 이유진, 조은비, 신효은, 성아란, 이소정, 신예은, 정하람, 김예빈 등 11명의 단원들이 독주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기량을 뽐낸다.

- 지도, 지휘/이명근(수석지휘자)
- 바이올린/황주예, 조은비, 신효은, 이소정, 김예빈
- 비올라/정지원, 정하람
- 첼로/이유진, 성아란
- 호른/조명환, 신예은

고신평아노소사이어티 20세기 음악의 밤

일 시 |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의 | 고신평아노소사이어티 010-7742-0556

고신평대학교 출신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고신평아노소사이어티(K-P-S)의 2021년 무대.

고신평대학교 음악과 명예교수로 있는 음악감독 김남숙을 비롯해 윤선해, 선아름, 정다운, 박민경, 김지원, 고태욱, 신현욱, 박보경이 라흐마니노프와 라벨, 드뷔시, 프로코피에프, 바르톡, 하차투리안, 카발레프스키, 리베르만 등 20세기를 빛낸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악흥의 한때 작품 16 제3번, 제4번 라벨/물의 유희
드뷔시/판화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제1번 사단조 작품 1
바르톡/문 밖에서 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재홍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복지 할인 50%, 동반 4인 할인 20%, 정기회원 및 학생 할인 10%)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해 9월 이태리 볼치노에서 막을 내린 제63회 페루초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과 함께 부조니 작품 최고연주상, 실내악 최고 연주상, 알리체 타르타로티상, 키보드 커리어 개발상 등 무려 4개 부문에서 특별

상을 수상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연주자 반열에 오른 피아니스트 박재홍 독주회.

프로그램

슈만/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
부조니/소평 프렐류드에 의한 10개의 변주 BV 213a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29번 내림나장조 작품 106 '함머클라비어'

제1회 부산국제현대음악제

일 시 | 11월 18일-19일 목-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의 | 부산국제현대음악제 010-6419-3635

올해 첫 걸음을 내딛는 부산국제현대음악제. 창작음악을 통한 피아졸라의 부활, '천사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유럽 현대음악계에 등장한, 유럽 유수의 작곡가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Concept Store Quartet 앙상블과 2016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018 '인태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우승, 2016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2013년 샌다이 국제음악 콩쿠르 준우승 등 화려한 입성경력과 폭넓은 레파토리와 그리고 깊은 음악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서형민이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작곡가 피아졸라와 Tobias Krebs, John Menoud, 그리고 작곡가 김택수, 오세일, 한대섭, 진소영, 임주섬, 김범기, 박주희, 이규봉, 정수란, 임지훈, 박성미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2021년 풍류전통예술원 기획공연
영남의 소리를 찾아서 2
峨眉山月歌(아미산월가)**

일 시 |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풍류전통예술원 010-2781-3888



지난 1999년 3월, 동해안 별신굿 이수자들로 창단한 후 그동안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인 동해안별신굿의 음악과 경상도 풍물 가락을 새롭게 창작해오면서 해양도시 부산의 색깔을 담아내는 전통연희팀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풍류전통예술원의 2021 기획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음악의 이전 명칭으로,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온 농악인들이 서구 아미동에서 조직한 걸립농악인 아미농악의 초창기 판굿을 재구성해보고 채상소고와 장구의 명인이었던 조판조 선생의 장구가락과 4대를 이어온 북의 명인 정운화 선생의 북 가락, 그리고 김한순 선생의 쇠가락과 소리를 재현해본다.

를 받아온 풍류전통예술원의 2021 기획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음악의 이전 명칭으로,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온 농악인들이 서구 아미동에서 조직한 걸립농악인 아미농악의 초창기 판굿을 재구성해보고 채상소고와 장구의 명인이었던 조판조 선생의 장구가락과 4대를 이어온 북의 명인 정운화 선생의 북 가락, 그리고 김한순 선생의 쇠가락과 소리를 재현해본다.

고은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고은비 010-4679-9046



현재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수석이자 앙상블 ART-O, Die Solisten,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고은비의 무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졸업하고 도독, 드레

스덴 국립음대를 우등 졸업하며 전문 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진 고은비는 귀국 후 포항시립교향악단, KNN 방송교향악단 객원연주자로 활동했으며,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고은비는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알프레드 슈니트케의 '콘체르토 그로소 제3번'을 한국 초연하기도 했다.

- 피아노/이섬승

Tango in Jazz&Clas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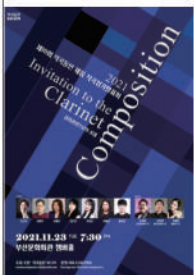
일 시 | 11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The Artist 010-9371-8987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들이 모인 The Artist의 무대. 이번 무대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둔 재즈와 탱고의 매력적인 만남으로, 크로스오버의 아버지 클로드 볼링이 작곡한 'Gaylanchoic', 'Africane' 등 플루트와 기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과 재즈음악과 정통 탱고음악에 다양한 연주적 요소들을 접목시킨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Invierno Porteño', 'Primavera Porteño', 'Escualo' 등 다양한 탱고 음악을 들려준다.



**작곡동인 세움 제10회 작곡 정기 발표회
클라리넷으로의 초대**

일 시 |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작곡동인 세움 010-3338-1906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작곡동인 세움의 10번째 정기 발표회. '세움(SEUM)'은 'Study & Explore Unified Music'이라는 슬로건으로, 클래식 음악과 현대음악을 연구하는 한편 작곡가와 연주자가

함께 교류하며 음악적 활동과 사교를 더욱 확장하여 발전하는 단체로 성장하고자 만든 단체이다. 그동안 세미나와 스터디를 통해 많은 연주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얻은 결과물로 연주회를 가져온 세움은 이번 무대에서 클라리넷리스트 유지훈, 김정민과의 두차례 세미나를 거쳐 세움 대표 진소영과 권태우, 조혜선, 김은진, 차성은, 최예린, 배성운 등 작곡가 7인이 창작한 클라리넷 솔로, 듀오, 피아노 3중주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클라리넷/유지훈, 김정민
- 피아노/유혜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21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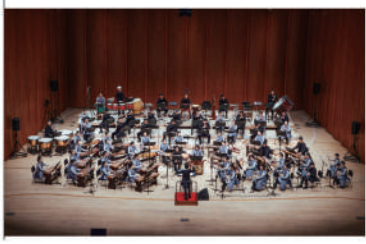


기량이 뛰어난 국악학도들의 등용문으로, 수많은 연주자들을 배출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이번 무대는 오디션을 거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협연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국악 전공생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통한 학구열을 자극함으로써 올해로 34년째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프로그램
계성원(편곡)/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와 관현악 토마스 오스본/해금협주곡 "Verses"
이건용/25현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 이준호/소금협주곡 '길'
정대석/거문고협주곡 '달무리'
이경선/모듬북협주곡 '타'
- 태평소/김지연(한양대학교 국악과 졸업)
 - 해금/이선영(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
 - 25현 가야금/이전매리(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
 - 소금/김의진(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 거문고/황진호(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3년)
 - 모듬북/이산(부산예술고등학교 3년), 한민혁(남천중학교 3년), 김정우(부산예술고등학교 1년)



DÓNO the 1st Concert Baroque & Romantic

일 시 |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DÓNO 010-2831-0981



부산대와 한양대 대학원,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수 오페라 무대에 서온 메조소프라노 이승은과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학사, 석사)와 미국 신시내티 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동대학원(연주학 박사)을 졸업하고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스테이플러스 멤버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은정, 경성대와 부산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실내악 및 독창회, 오페라 등 다수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신희정, 부산대와 국민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 음악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서혜은, 부산대 음악학과와 인제대 일반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Ensemble Dodam 첼리스트, Wonder Cello 멤버로 있는 첼리스트 정혜주로 구성된 DÓNO의 창단무대.

강한솔, 정은혜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예술기획 마음미인 010-8367-3033



미국 United States Piano Duo International Competition 입상자이자 부부 피아니스트로 세계적인 수준의 듀오 연주를 선사해온 피아니스트 강한솔, 정은혜의 듀오 무대. 미국의 거장 존 페리로 부터 'Superb Concert Pianist'라는 찬사를 받고 한국과 미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한솔은 현재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 교수, 서울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인제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프란츠 리스트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화려한 기교와 뛰어난 무대 장악력을 겸비한 피아니스트로 호평받는 정은혜는 현재 서울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최민경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민경 010-9496-2687



진정 음악의 아름다움을 아는 연주자로 작곡가의 의도를 훌륭히 표현하며 섬세한 감성과 다양한 음색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전하는 피아니스트 최민경 독주회. 부산대학교와 독일 트로빙엔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최고과정을 졸업한 최민경은 2007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솔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실내악, 가곡 및 오페라 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작곡그룹 An-ti Stimmung 연주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경은 이번 무대에서 쇼팽과 베토벤, 조희주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전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브람스

일 시 |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첼리스트 양성원의 협연으로, 가장 시적이며 사색적인 작품으로 꼽는 슈만의 '첼로협주곡'과 '가단조 작품 129'와 늦가을의 서정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협연자 양성원은 현재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이자 영국 런던의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RAM)의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 협연/첼리스트 양성원

제5회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 010-8559-0415



부산 지역예술의 발전과 실내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결성된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는 2016년 창단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매년 사랑나눔음악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음악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바흐, 비발디의 작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격려와 위로의 음악을 선사한다.
• 지휘/임재우
• 예술감독/이재성 • 악장/안은탁
• 특별출연/강희숙(리코더), 손혜은(메조 소프라노)

생상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생상과 소월 함께 본하늘

일 시 | 11월 28일 일요일 오후 4: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예술기획 미담 010-4680-0051



생상 서거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부 생상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요소로 서정적 세계를 시적으로 표현한 시인 김소월의 작품세계를 통해 동서양의 낭만주의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유연하고 다채로운 색의 목소리와 기교로 여러 가지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소프라노'라고 평가받는 소프라노 정아영과 바흐부터 리게티까지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배필로, 미국 인디애나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미주리대 캔자스시티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첼리스트 송승찬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생상의 대표곡을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김소월의 시를 작곡한 아름다운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회복

일 시 |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하모니합창단 010-5141-0776



지난 2003년 창단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해외 초청연주회를 통해 부산과 부산의 합창음악을 국내 외에 널리 알려온 부산하모니합창단 17번째 정기연주회.

부산하모니합창단은 그동안 이태리 노비리구레시 순회연주를 비롯해 미국 링컨센터 연주,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캄머홀 연주 등 국제무대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합창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랜달 스트루프의 예술합창을 비롯해 부산의 젊은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창작공모한 3곡의 한국창작곡이 연주되며, 이밖에 우리 귀에 익숙한 팝합창과 리듬 가득한 세계의 민요 등 화려한 합창음악의 세계를 보여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제66회 정기연주회 판타스틱(Fantastic)

일 시 | 12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도 올 한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기 노력했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2021년 마지막 무대 '판타스틱(Fantastic)'.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고 삼육대학교 글로벌 영재교육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서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핀란드의 국민작곡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표제음악의 완성자라 일컬어지는 베를리오즈의 대표작 '환상교향곡'을 들려준다.

협연자 이서현은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과 섬세한 테크닉을 겸비한 바이올리니스트로 현재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오케스트라, 피아노트리오 여운 단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일 시 | 12월 3일 금요일 오후 9: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음악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동시대 음악인 현대음악을 소개하는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지난 2019년 '미니멀리즘 음악'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심야음악회에서는 음악의 태동 이래 가장 이질적 장르 중 하나인 '그래픽 노레이션'을 소개한다.

프로그램
 일 브라운/디셈버 1952
 보드 코르디에/벨, 분, 세이지
 베르그스톤 날스/투워드 언 언베어러블 라이트니스(Towards An Unbearable Lightness)
 • 지휘/이민형

부산문화회관 2021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 베르디 완전정복 베를린국립오페라 맥베스

일 시 | 12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2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세계 각국의 유명 오페라 극장과 페스티벌의 공연 실황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21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

2021년 베르디 대표작 4편을 소개하는 '베르디 완전정복' 마지막 상영회로, 2018년 베를린 국립오페라 극장 신작 '맥베스'를 상영한다. '오페라의 거인'이라 불리는 베르디는 1-20세기 오페라 꽃을 피운 이탈리아 작곡가로, 60년동안 작곡가로 활동하며 '리콜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오텔로' 등 현재까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오페라 작품들을 작곡했다.

베르디의 초기 오페라 중 하나인 '맥베스'는 거대한 서사 탓에 자주 공연되는 작품은 아니지만 당시 30대였던 베르디의 나이가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이 있고 원숙한 작품성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니멀한 세트 위에 다양한 영상으로 비주얼적 활력을 더한 무대에서 77세의 살아있는 전설 플라시도 도밍고, 파워풀한 기량의 안나 네트렙코, 섬세한 표현력의 연광철이 시너지를 폭발시킨다.

- 장소/베를린 국립오페라 극장 운터 덴 린덴
- 연출/해리 쿠퍼
- 지휘/다니엘 바렌보임
- 연주/베를린 슈타츠헤펠레
- 출연/플라시도 도밍고(맥베스), 안나 네트렙코(맥베스 부인), 연광철(뱅크우)



2021 적재 전국투어 서로의 서로

일 시 | 12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1만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싱어송라이터 적재의 따뜻한 음악과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적재 부산콘서트

지난 2014년 가요계에 데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투어 콘서트로, '서로의 서로'라는 타이틀처럼 다르게 지나온 우리지만 함께 걸어가며 온전하게 하나가 될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아이유, 태연, 김동률, 박효신, 정재형, 거미, 케이윌 등 많은 뮤지션들과 음악작업을 함께 하며 공연의 라이브 세션으로 이름을 알린 적재는 2014년 정규 1집 '한마디'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 후 배우 박보검이 리메이크해 화제가 된 '별 보러 가자'를 비롯 '나랑 같이 걸을래',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잘 지내' 등 그만의 섬세한 감성이 깃든 진솔한 노래들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민회관

2021 제59회 부산예술제
秀秀한 연극 초청전

일 시 | 11월 3일-4일 수-목요일 오후 7:30,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극 공연을 선보이고자 마련하는 '秀秀한 연극 초청전' 극단 여정 '복녀씨 이야기'와 극단 누리에 '개 짓는 날' 등 두 작품이 선보인다. 3일(수)-4일(목) 복녀씨 이야기

자갈치시장 노총각 덕구와 결혼한 꿈 많고 당찬 몽골 아가씨 자르갈과 자갈치시장의 트러블메이커 복녀씨의 좌충우돌 만남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객석에 던지는 극단 여정 '복녀씨 이야기'.

6일(토)-7일(일) 개 짓는 날

가족의 유일한 돈벌이 수단인 개농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에 대한 따뜻한함을 전하는 극단 누리에 '개 짓는 날'.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콘서트 오페라 청교도

일 시 |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아름다운 선율과 넓은 음역대, 고난도의 기교가 특징인 벨리니의 벨칸토 오페라 '청교도(Puritani)'. 완벽에 가까운 기교를 요구하는 난이도 높은 오페라 중 하나이기도 자주 공연되지 못하는 오페라 '청교도'는 벨칸토 오페라의 거장으로 자리잡은 벨리니의 마지막 오페라로, 특히 '청교도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픽션을 가미한 작품이다.

17세기 영국 왕당파와 청교도가 지지하는 의회파의 대립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청교도 요새 성주의 딸 엘비라와 왕당파 기사 아르투로의 가슴 시린 사랑과 청교도 장교 리카르도의 질투,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엘비라의 숙부 조르지오까지 4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이탈리아 모데나교우날레극장의 2017년 작으로, 지휘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립극장 오페라 감독으로 있는 마에스트로 마르셀로 모타델리가, 연출은 프란체스코 에스포지토가 맡았으며, 눈부신 색채감과 놀라운 음악성으로 오늘날 벨칸토 레퍼토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는 소프라노 데지레 란카토레(엘비라)와 최고의 리릭 테너 줄리오 펠리그라(아르투로), 그리고 유럽 전역을 누비며 활동하고 있는 엘리아 파비안(리카르도), 우고 갈리알도(조르지오)가 출연해 정통 이탈리아 오페라의 감동을 전해준다.

- 지휘/마르셀로 모타델리
- 연출/프란체스코 에스포지토
- 안무/도메니코 이안노네
- 출연/줄리오 펠리그라, 데지레 란카토레, 엘리아 파비안, 우고 갈리알도, 주세피나 피온티
- 연주/디오오케스트라
- 합창/위너오페라합창단



Turn Toward Busan
2021 평화물결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일 시 |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국제적 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 2021'을 기념하는 무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열리는 '턴 투워드 부산'은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티나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

된 유엔군 전사자의 넋을 기리고자 그들이 안장되어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전 세계가 1분간 묵념할 것을 제안한 이래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되어오고 있다.

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부산내셔널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소프라노 박희정, 바리톤 허중훈이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2021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

일 시 | 11월 20일(토) 오후 4:00,
25일(목) 오후 7:30, 12월 7일(화)
오후 7:30 대극장·소극장
문 의 | 이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9



올해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에 선정된 이지무스오페라단의 '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 개막공연. 이지무스오페라단은 지난 2002년 창단 이래 38차례 오페라 정기공연과 450여 회의 음악회를 통해 오페라의 자변확대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힘써왔다. 이번 '해피엔딩 오페라음악제'에서는 개막공연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시작으로 미니 오페라, 오페라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오페라 세계로 안내한다.

11월 20일(토) 오후 4:00 대극장
개막공연 '오페라 갈라콘서트'
지휘자 윤상운이 지휘하는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들을 만난다.

- 예술총감독/손욱 • 지휘/윤상운
- 연출/허복영 • 음악코치/최승희, 신주옥
- 소프라노/이재란, 김은수, 구민영
- 테너/최용석 • 바리톤/박대용
- 베이스/박순기
- 연주/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 입장료/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11월 25일(목) 오후 7:30 소극장

미니오페라 '코지 판 투테'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부파로, 남녀의 미묘한 심리를 다룬 희극 오페라 '코지 판 투테'를 미니오페라 형식으로 선보인다.

- 예술총감독/손욱 • 연출/허복영

■ 입장료/R석 4만원, S석 2만원

12월 7일(화) 오후 7:30 대극장

오페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서 가장 자주 상연되는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주요 아리아와 함께 소개하는 오페라콘서트

- 예술총감독/손욱 • 지휘/윤상운
- 출연/박현진, 김준연, 강경원, 함석헌
- 연주/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 입장료/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어린이뮤지컬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일 시 | 11월 20일-2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5만5천원
문의 | 극단 화랑 1644-5564



프랑스, 일본, 미국 등지에서 압도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동명의 변신 히어로물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파리를 구하기 위해 선택된 마리네뜨와 아드리앙은 마법의 귀걸이와 반지로 슈퍼 히어로인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으로 변신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당 호크모스는 레이디버그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어둠의 마법을 걸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초강력 악당으로 만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와 싸워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레이디버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거 같아 그 옛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데... 파리를 실제로 재현한 듯한 사실적인 무대와 고난이도의 역동적인 액션이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부산시민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춘향탈옥

일 시 |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능, 사전예매 필수)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련하는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상영회.

예술의전당 공연실황을 생생한 고화질의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이번 상영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고전소설 '춘향전'을 바탕으로 100% 우리말과 노래로 구성된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 '춘향탈옥'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원작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180도 뒤틀면서 반전매력 성춘향, 고시생 이몽룡, 로맨티가이 변사또 등 등장인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한편, 한국어로 된 대사 와 노래로 좀 더 친숙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쓸쓸한 재미를 선사한다.

1·4후퇴 70주년 기념 다시부르는 피란수도, 부산

일 시 |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좌석 10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 부산오페라연합회 010-9390-0790



지난 2014년 부산지역의 오페라 제작과 지역 공연 활성화를 위해 창립한 부산오페라연합회가 마련한 '다시부르는 피란수도, 부산'.

부산원도심의 문화예술 부흥과 예술로 인한 도시 재생을 만들고자 2018년 원도심인 중구 대청로로 이전, 재발족한 부산오페라연합회는 그동안 다양한 공연예술문화 사업과 전문 연주인의 연주활동 지원, 그리고 문화 소외계층의 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왔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지역 출신 인물이나 지역의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꾸준히 제작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1·4후퇴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전쟁 중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였던 부산을 담은 노래를 통해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티브 바라캇 내한공연 with 데이드림

일 시 |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문의 | 실버트레인 1544-1555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스티브 바라캇 부산공연. 클래식을 기반으로 재즈와 뉴에이지 등 자신의 음악영역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음악장르를 통해 자신의 음악세계를 전달해온 스티브 바라캇은 Flying, Day by Day, Rainbow Bridge 등 다수의 드라마나 광고 배경음악으로 그의 음악이 사용되면서 한국팬들과도 매우 친숙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대표곡 외에도 올해 7월 새롭게 발표한 그의 10번째 음반 '네오리얼리티'에 수록된 신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드라마 '겨울연가' 작곡가로 잘 알려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데이드림이 함께 한다.

땀대 광대 연희 챌린지

일 시 | 11월 30일-12월 2일 화-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부산예술단 010-3585-0115



수준 높은 가(歌), 무(舞), 악(樂)과 전통예술작품을 제작, 연주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예술 공연단체인 부산예술단의 무대.

사물놀이에서 흔히 사용하는 레퍼토리 형식에서 벗어난 극 형태의 작품으로, 광대들의 기량을 겨루는 틱놀이(땅줄, 버나놀이, 죽방울놀이, 살판)와 개인놀이(설장구, 북춤, 채상소고 등)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춤, 재주, 연희, 전통음악을 통한 연희주자들의 다이내믹한 재주와 연주를 선보인다. 특히 경쟁과 화합이 공존하는 전통연희의 본질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극 형식의 종합 연희극으로, 이번 무대의 수익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액 기부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일 시 | 12월 1일-2일 수-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48개월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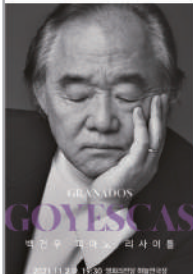
전석 매진행렬을 이어온 연말 시즌 스테디셀러, 국립발레단 전막발레 '호두까기인형'.

이번 무대에 오르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천재 안무가로 불리는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1966년 마리우스 피티파의 원작을 재안무하여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이 초연한 작품으로, 2000년 국내 초연 이후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한 스테디셀러 공연이다. 특히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지는 높은 점프와 고난도 회전, 역동적인 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음악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불리는 거장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무대.

지난 2011년 12월, 영화의전당 개관 축하 리사이틀을 열었던 백건우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영화의전당을 찾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페인 의 쇼팽’이라 불리는 스페인의 대표 작곡가 그라나도스의 ‘고예스카스’ 모음곡 전곡을 연주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면서 연주에 전념하고 있는 백건우는 예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 기사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19년 ‘백건우와 쇼팽’ 리사이틀 15개 도시 투어, 2020년 ‘백건우와 슈만’ 리사이틀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 수요공감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24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출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년 전통예술인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해온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수요공감’.



3일 유지홍 ‘춤, 마음을 잇다’ [신진예술가]
 경상북도 도립무용단 상임 단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전수자, 제39호 차용무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유지홍의 무대.

프로그램

선살풀이, 궁중정재 검무, 태평무(한영숙류),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살풀이(한영숙류), 소고놀이, 진도북춤

10월 2021 신예담의 춤 ‘전통의 향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이수자이자 신예담 무용단 대표, 동백아리랑예술단 단장으로 있는 신예담의 춤.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신예담은 제40회 전국무용예술제 종합대상, 제30회 전국국악대단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 권명화 명의 춤사위를 잇는 권명화류 대구살풀이춤, 입춤, 대바리춤, 고풀이춤, 검무, 소고춤을 선보인다.



17일 김선민 ‘선을 넘다’
 해가람 사물놀이 대표이자 창작연희 The는 단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부산고분도립걸림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민의 무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서 타악을 전공한 김선민은 제24회 정음 전국농악명인대회 명인부설장과 최우수상, 2020 타악 페스타 두드리 두드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1 MiOT 제24회 정기연주회 건반음악 오늘까지 II

일 시 | 11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MiOT 701-1584, 010-6566-1584

지난 1997년 작곡가 강순희를 주축으로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알려진 MiOT(Music in Our Time·우리시대음악)의 24번째 무대.

음악문화사를 통틀어 가장 친근하면서도 널리 보급된 피아노(건반악기)를 주제로,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와 미국, 한국 등 세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적 분포와 문화적 특성이 오늘날 음악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또는 대표적인 이론과 미학적 가치가 어떻게 공유되고 배제되는지를 탐색해본다.

- 예술감독/강순희



노자와 베토벤

일 시 |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무대에서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와 철학으로 음악을 사유하는 오충근 지휘자가 함께하는 철학을 품은 클래식 무대 ‘노자와 베토벤’.

부경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오충근 지휘자가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더불어 이 시대의 울림을 주는 실천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 관객과 교감하며 인생 철학을 나누는 이번 무대는 진정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예술적 경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장르와 장르가 교차하고 지역과 지역이 마주하는 독창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사)새말새꿈짓 이사장, 건명원(建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첼리스트 이강현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도독, 휘백 음악대학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한국일보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1위, 조선일보 ‘올해의 신인상’ 수상, 고티에 카푸송 주최 Classe d'Excellence de Violoncelle 2018/19시즌 최종 수상자로 차세대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프로그램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2악장

브루흐/신의 날 작품 47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작품 39

베토벤/교향곡 제5번 작품 67 ‘운명’ 4악장

- 지휘/예술감독/오충근(국립부산경대학교 석좌교수)
- 특별출연/철학자 최진석(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협연/이강현(첼로)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11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로, 클래식에서부터 성악, 국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3일(제760회) 신승민 플루트 독주회
 섬세한 기교와 유려한 음색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플루티스트 신승민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독, 함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과정을 수료한 신승민은

현재 아라온 목관5중주, 플루트 앙상블 4Flism 리더로 활동 중이다.

- 프로그램**
 최영민/당신에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Blaz puchar/For me for Flute Solo[국내초연]
 네이 로자우로/2개의 모음곡 등
 • 피아노/한은영 • 마림바/김영훈



10일(제761회) 김주영 바이올린 독주회
 안정된 연주력과 탄탄한 테크닉으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독주회.
 서울예고 재학 중 미국으로 도미, 인디애나 주립대학 예비학교에 입학한 후 인디애나 주립대학 음대 학사, 줄리아드 음대 석사, 맨하탄 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과 한국인 최초 바이올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장학생으로 취득한 김주영은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스트링 아테소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작곡가 시리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트링 아데소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곡으로 꾸며진다.

- 바이올린/최종환, 황재윤, 박은경, 신호은
- 비올라/김규, 박영훈
- 첼로/김민승, 변은석

17일(제762회) IF Flute Ensemble 정기연주회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오신정 교수를 중심으로 플루트 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 구성된 IF Flute Ensemble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M. Berthomieu, Laszlo Zempleni, Eugene Bozza, Y. Satoshi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오신정
 • 지휘/이요섭
 • 협연/박지윤, 권성영, 김나영



24일(제763회) 김태기 피아노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는 피아니스트 김태기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김정권, 슈만, 무소그스키 등 초겨울의 서정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스페이스 옴 11월 음악회

일 시 | 11월 5일(금), 11일(목), 19일(금), 26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 옴
 입장료 | 초대(26일 공연은 전석 1만원)
 문 의 | 스페이스 옴 557-3369 www.spaceum.kr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 옴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는 스페이스 옴 11월 음악회.



5일(제434회) Ontact Concert '선물VII'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하고 현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중 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로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금주자 윤해승의 무대.

11일(제435회) Ontact Concert '선물VIII'
 실력과 파워는 기본, 여성퓨전국악팀 '신비'와 클래식을 그들만의 음악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리즈,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탱고음악의 매력을 탱고앙상블로 전하는 전도사 친친탱고 등 다양한 장르의 세 팀이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



19일(제436회) Ontact Concert '선물IX'
 한국팬플룻오카리나강사협회 회장, CTS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음악감독, 국제오카리나페스티벌 총감독으로 있는 홍광일이 이끄는 칸타레 앙상블의 무대.

- 음악감독/홍광일
- 연주/안다운, 조성영, 노승진, 서혜진, 김준화, 정재윤, 이창희



26일(제437회) 지림씨의 재즈 로망스 9번째
 재즈 피아니스트 하지림의 진행, 해설로 진행되는 '지림씨의 재즈 로망스' 9번째 무대.
 올해 6월 첫 번째 정규앨범 'Night Flight'을 발매한 피아니스트 홍성용의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로 마련된다.

국립부산국악원 명품 레퍼토리 토요일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님치는 가무악의 무대 '토요신명'

- 6일 수제천, 포구락, 판소리, 진쇠춤, 대금가야금중주 '대바람소리'(이상규 곡), 웃다리 판곡
- 13일 자진한잎 '우조, 두거', 처용무, 남도민요, 해금독주 '비'(김영재 곡), 부채춤, 삼도농악가락
- 20일 상령산, 시조, 장구춤, 동래학춤, 태평소와 사물놀이, 강강술래
- 27일 천년만세, 무고, 경기영남민요, 버꾸춤, 해금야쟁중주 '접동새'(계성원 곡), 무물판굿

성민주 클래스 콘서트

일 시 | 11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20일 토요일 오후 3:00 **아모스 아트홀**, 25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2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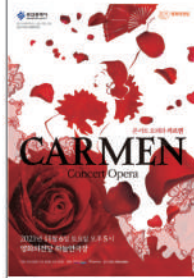
입장료 | 초대
문의 | 성민주 010-3815-3190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성민주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콘서트 이번 무대는 현재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예고, 부산예중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그의 제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학구적인 무대이다.

2021 부산 오페라 WEEK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

일 시 | 11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집시 여인 카르멘과 돈 호세의 비극적인 연애를 다룬 '카르멘'은 특히 남성을 파멸시키는 팜파탈의 매력을 되살리기 위해 주인공 카르멘 역을 메조소프라노가 맡아왔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의 메조 소프라노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 빈 국립극장에서 데뷔한 메조소프라노 양송미가 카르멘 역을 맡아 치명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 예술감독/정두환 • 지휘/이동신
- 음악코치/김경미 • 합창지휘/김성복
- 출연/양송미, 양송엽, 우주호, 왕기현, 손혜은, 박나래, 채범석, 이우정, 강도호
- 연주/두레라움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두레라움오페라합창단

제33회 짜장콘서트

일 시 | 11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로비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선착순 30명)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11월 무대에서는 현재 부산 오페라연합회 예술총감독, UN 평화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중국 유니타드 소녀방송합창단 지휘자, 국제문화예술교육원 원장으로 있는 바리톤 장병혁이 초청 솔리스트로, 밀라노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 메조 소프라노 남수지가 청년음악가로 출연하며, 연주와 반주는 바이올린 진혜빈, 첼로 이강수, 피아노 이수민 등으로 구성된 앙상블 '프로뮤지카'가 맡는다. 이진이가 진행하는 이날 무대에서는 지역 창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창작곡 '눈사람'(김수우 시·최삼화 곡)이 세계 초연되며, '톡톡(Talk Talk): 나의 노래방 1번' 코너에서는 대중가요 '사랑이여'(최용식 사·곡)이 준비되어 있다.

정주연 열두 번째 플루트 리사이틀 Flute, be with You

일 시 |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거리두기 착석)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미국 맨해튼음대를 졸업하고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0년 귀국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독주회를 가져온 플루티스트 정주연의 무대. Korea wind consort 멤버, KNN 방송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주연은 현재 부산시 교육청 소속 학생교육문화회관 오케스트라 지도강사로 있으며 부산에 살고등학교, 부산대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색다른 무대를 선사해 온 정주연은 이번 무대에서 기타리스트 김경태, 피아니스트 안주희와 함께 이베르, 피아졸라, 비르토미외, 라이네케의 곡을 들려준다.

제10회 바리톤 고틀수와 함께하는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을음악회

일 시 |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10세 미만 입장불가)
문의 | 부산우리가곡부르기 010-4434-6606



성악의 대중화에 힘써온 바리톤 고틀수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부산우리가곡부르기는 전문 성악가와 아마추어 성악가,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배우고 익힌 우수한 한국가곡을 널리 알려오고 있다.

- 이번 무대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신정순, 양라운, 박지은, 김소라, 김주연(청년 예술가)
 - 메조소프라노/손혜은 • 테너/서치환, 백예훈
 - 바리톤/안세범 • 베이스/김정대
 - 특별출연/해운대도서관 가곡교실, 금정점 이마트 가곡교실, Bella 중창단 가곡교실

2021 제50회 부산작곡가협회 창작곡 발표회 뒤돌아보고 앞을 바라보다. 위드 코로나

일 시 |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부산작곡가협회 010-4099-2229



지난 1983년 (사)한국작곡가협회 부산지부로 창립한 부산작곡가협회는 그동안 창작발표회를 비롯해 악보집 및 음반 출판,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작음악 발전에 힘써왔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멈췄지만 지난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본다는 의미를 담아 회원 작곡가 8명의 다양한 솔로 기악곡이 선보인다.

- 작곡/정혜옥, 노재봉, 조혜선, 권유미, 이유희, 이승은, 진소영, 박규동
- 연주/유지훈(클라리넷), 이주경(플루트), 정하람(비올라), 장예지(플루트), 우리라(첼로), 김지은(가야금)

2021 예술공감제3회 바모스 탱고, 바모스 클래식

일 시 |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3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00-5811

정통 클래식 연주자와 재즈 연주자들이 만나 색다른 음악을 선사하는 메츠클라의 무대. 스페인어로 '혼합'을 뜻하는 메츠클라(Mezcla)는 정통 탱고음악을 클래식과 재즈의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로 풀어내면서 관객과 소통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메츠클라의 주요 레퍼토리와 더불어 'Piazzolla Stage'를 선보인다.



시민공감콘서트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일 시 |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9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공감콘서트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난 2002년 창단 후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서온 아지무스오페라단이 '202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1부 영상에세이 '기억 속으로', 2부 시극 '나는 열네살 무자', 3부 '한국가곡과 추억의 노래', 4부 파발레 '희망의 나라로'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 출연/소프라노 이재란, 구민영,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바리톤 박대용, 팝페라그룹 라봄(곽유림, 손유경, 최유진, 김지현)
- 시낭독/홍순연(극단 자갈치 대표)
- 반주/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윤상운)

제16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한국가곡의 밤 시와 노래

일 시 |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전화예약)
 문 의 |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010-3868-2808



동서대학교 정태미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창단한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는 지난 2012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시와 노래'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부친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 예술총감독/정태미
- 소프라노/장은영, 권미현, 이지은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배주향
- 테너/김화정, 양승엽
- 바리톤/윤오건, 시영민
- 피아노/이소영, 김란

아르스현악사중주단창단20주년기념연주회 새로운 시작

일 시 |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예술인패스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신라대학교 교수인 리더 조현미를 주축으로 부산 시립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부산 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이성호, 신라대학교 외래교수이자 솔리스트 필 수석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

현악사중주단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경성대학교 조현선 교수의 피아노 협연으로 수준 높은 현악앙상블의 무대를 선사할 이번 무대에서는 올해로 탄생 180주년을 맞은 드보르자크 현악4중주 '아메리카'와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5중주'로 깊어가는 가을, 코로나를 이겨낼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한다.

2021 부산 오페라 WEEK 부산 오페라 갈라

일 시 |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2021 부산오페라워크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산 오페라 갈라'. 오페라 속 가장 빛나는 장면,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을 갈라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 마니아는 물론 오페라가 낯선 관객들에게는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특히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사랑 받는 다양한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해 100년 역사를 지닌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 지휘/양진모
- 연주/부산로열필하모니오케스트라
- 출연/소프라노 김영미, 김유선, 서선영, 박소영, 테너 김남두, 신상근, 최원희, 박승주,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바리톤 우경식

제23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일 시 |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010-9287-6350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천혜의 주변 환경을 널리 알리고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누구나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제 23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예술회음악회가 주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지역 성악가, 연주자들과 브리조는 색소폰 앙상블, 경성대 성악아카데미 멜로스여성앙상블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 및 국내외 가곡,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출연/소프라노 박미경, 양근화, 테너 강학윤, 바리톤 박찬,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정, 피아니스트 손혜진, 김은희, 브리조는 색소폰 앙상블, 경성대 성악아카데미 멜로스여성앙상블

울속도문화회관 제81회 명품콘서트 국향만리

일 시 |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울속도문화회관이 매년 가을이면 국악의 흥취로 깊은 감동을 주는 '국향만리' 2021년 무대. '국향만리'는 '국악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뜻으로, 매년 신명넘치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무대에서는 지난 2004년 창단 후 전통국악의 아름다움과 창작국악의 멋스러움을 알려 온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국악관현악단인 부산국악오케스트라와 첼리스트 홍승아, 가수 신유 등이 출연, 감동과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이경섭/멋으로 사는 세상
홍동기/고구려의 혼
이경섭/추상 등 수곡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22회 정기연주회 작은 것들을 위한 음악II

일 시 | 11월 21일 일요일 오후 4: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선착순 입장)
문의 |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010-2562-6561



지난 2000년 창단 후 리코더 음악의 교육적, 예술적 가치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제22회 정기연주회.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소규모 양상을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향상반(지휘/최유리), 기초반(지휘/황정순) 무대에 이어 연주반 단원들이 남아메리카의 정열을 느낄 수 있는 춤곡 'Kalympo'와 Tango,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부산리코더양상들과 함께 들려준다. 특히 리코더의 전성기였던 바로크 시대 거장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RV.108', 텔레만 '협주곡 TWV 40:202 전 악장'을 챔발로와 함께 들려준다.

• 단장/이훈희 • 예술감독/강희숙

2021 예술공감 제4회 비원의 '법고창신'

일 시 |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3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꼭 이루고자 하는 비장한 염원이나 소원'이라는 뜻을 품고 지난 2019년 창단한 퓨전국악밴드 비원의 무대.

피리, 대금, 건반, 베이스 기타 등 경계가 없고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연주자들이 모여 창단된 단체로, 그동안 한국음악의 구수한 음색과 가락, 서양음악의 화려하고 능수능란한 리듬이 잘 어우러진 비원만의 맛깔스러운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도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은옥, 성민주 듀오 리사이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시리즈 4

일 시 |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성민주 010-3815-3190



서울대학교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과 이화여자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경남대학교에 출강중인 피아니스트 성민주의 듀오 무대.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는 시리즈 마지막 무대로, 그 당시 피아노 반주로서의 역할로 출발했던 바이올린이 피아노와 대등한 지위에서 연주하게 되는 소나타 제20번 KV 303을 비롯해 KV 377, 547, 526 등 네 곡을 들려준다.

용프라우시스 기획공연 바이올린으로 듣는 독일 연가곡 시리즈 III 멀리 있는 연인에게

일 시 |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용프라우시스 010-3308-3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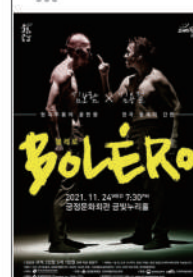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 피아니스트 강우용의 연주로 열리는 바이올린으로 듣는 독일 연가곡 시리즈 세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연가곡의 시초이자 베토벤의 유일한 연가곡집인 '멀리 있는 연인에게'를 비롯해 '겔레르트의 시에 의한 6개의 가곡', '3개의 노래', '희망에 부쳐', '아델라이데' 등 베토벤의 가곡들을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준다.

현재 예명현악사중주단 제1바이올리니스트, 로 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정진경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도시에서 다수 연주회를 가져왔으며, 현재 부산예고 강사, 부산교육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김용걸&김보람 볼레로

일 시 |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우리나라 무용계를 대표하는 발레리노 김용걸과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안무가 김보람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한국발레를 대중적으로 부흥시킨 발레스타로, 국립발레단을 거쳐 세계 최정상급의 발레단인 파리 오페라발레단에 한국인 최초로 입단하여 솔리스트로 활약한 김용걸의 몸짓과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6억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며 특유의 위트있고 역동적인 안무로 가장 대중적인 현대무용가로 자리매김한 김보람의 현대무용이 만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안무가들에게 끊임없는 감흥과 영감을 선사해온 라벨의 '볼레로'를 서로 다른 개성으로 선보인다.

• 연주/코리아콥오케스트라(지휘/차용)

2021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시네마 뮤직 파라다이스 11월 배우 정영주 음악이 빛나는 영화

일 시 |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뮤지컬 1세대 배우로, 최근에는 드라마, 영화까지 활동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정영주와 함께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올해로 데뷔 26년차에 접어드는 정영주는 지난 1994년 뮤지컬 '스타가 될 거야'로 데뷔한 후 그동안 '브로드웨이 42번가', '팬텀', '레베카' 등 다양한 뮤지컬 작품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여왔으며, 2019년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로' 한국뮤지컬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배우 이영미와 함께 지치지 않는 열정의 원동력이 되어준 노래들을 시원한 가창력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소개한다.

예감·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산지회 부산이 품은 노래를 찾아서

일 시 |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부산예술회관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는 문화가 있는 날 2021년 마지막 무대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단체인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산지회가 출연, 한국 대중가요의 발상지인 부산의 노래를 발굴하고 팝으로 편곡한 노래들을 선보이는 '부산이 품은 노래를 찾아서'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국 대중예술과 부산의 근현대사를 해설과 함께 풀어내는 가요무대이다.



아칸토 목관5중주 창단연주회 새로운 만남

일 시 |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의 | 아칸토 목관5중주

플루트과라렛 '클랑', 비엔노 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길명훈, 경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KNN방송교향악단 부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오보이스트 정새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 앙상블 LEEYOU 멤버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이효주, KNN방송교향악단 단원, 경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바수니스트 장주예, 엘라스 목관5중주, 시간의 소리 앙상블 멤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있는 호른리스트 강민주 등 연주가량이 뛰어난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아칸토 목관5중주의 창단무대.

프로그램

하이든/디베르티멘토 내림나장조 Hob II 46
비제/카르멘 모음곡
말콤/3개의 선술집 노래
브리치알디/목관5중주 라장조 작품 124 등

울속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Movie OST 힐링콘서트

일 시 |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소프라노 김지현과 테너 류무룡으로 결성된 국내 최초의 혼성 팝페라 듀엣 휴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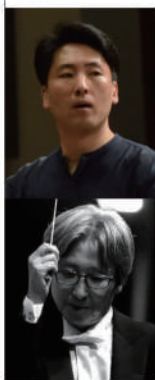
'휴(HUE·休)'는 '쉼, 안식'이라는 의미의 '휴(休)'와 빛깔이라는 'HUE'를 접목한 이름으로, 그들만의 음악적 빛깔로 듣는 이에게 안식과 쉼을 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파워풀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재해석하여 크로스오버 음악의 진수를 선사해온 '휴'는 이번 무대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의 명장면과 더불어 OST를 즐길 수 있는 'Movie OST 힐링콘서트'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Legend(반지의 제왕), My Heart Will Go On(타이타닉), Memorize(태극기 휘날리며) 등 수록

부산여성실내악단 제15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학생 1만원(단체 20% 할인)
문의 | 부산여성실내악단 010-3858-9434



지난 1989년 지휘자 김영근이 부산지역의 여성연주자 28명으로 창단한 부산여성실내악단 정기연주회.

1부 'The Classic'에서는 지휘자 김현국이, 2부 'The Grand Gala'에서는 지휘자 김영근이 지휘를 맡아 그리고, 브루흐, 도플러, 모차르트 등 클래식 명곡을 비롯해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첼로/양옥진 • 피아노/안선영
- 플루트/오신정, 이효련
- 소프라노/박현진 • 테너/김준연

2021 굿모닝 콘서트 제3회 바람에 실은 선율의 울림

일 시 |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블랙언커피 포함)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울속도문화회관이 개관 이후 처음 선보이는 품격있는 해설과 음악이 있는 브런치 무대 '굿모닝 콘서트' 11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개인적 기량이 뛰어난 젊은 금관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부 브라스콰이어가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경쾌한 무대를 선사한다.

- 해설/안희성(MBC부산문화방송 아나운서)



그림읽어주는 베토벤 고흐vs고갱

일 시 |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1:3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4만5천원
문의 | 아이에이치컬처 070-4045-2302



영화와 클래식이 공존하는 예술프로그램으로 지난 10여년간 대학로 1m 클래식아트홀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온 '그림읽어주는 베토벤' 이번 무대에서는 인상주의 화가인 고갱과 고흐의 이야기를 소재로, 그들이 함께 고민했던 예술세계와 작품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갈등을 주제로 국내 최초의 클래식 큐레이터인 조숙현의 명쾌한 해설과 전문연주자들의 감동이 있는 연주, 그리고 화가의 작품을 통해 영화 속 클래식의 매력에 다가갈 수 있다.

- 연출/임용순
- 해설/클래식 큐레이터 조숙현
- 연주/일미테크래식앙상블

제6회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정기연주회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시그니처 콘서트 6 누에보 with 박수현

일 시 | 11월 28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현장판매)
문의 |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010-8524-0069



지난 2015년 '젊은 음악, 새로운 시도, 공감할 수 있는 클래식'을 모토로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들로 결성된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의 무대. 지휘자 없이도 견고하고 완벽한 앙상블을 소화하며, 멤버 개인의 색채가 어우러지면서도 조화로운 앙상블을 추구하는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아벨라르렛 멤버로 제네바 국제콩쿠르에서 현악사중주 부문 3위로 한국인 최초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현의 협연으로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러시안 판타지

일 시 |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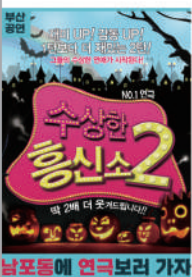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전 11시 다채로운 장르와 주제로 열리는 금정문화회관의 특별한 무대 '11시 브런치 콘서트' 11월 무대.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이 이끄는 스트링 아데소와 테너 조윤환이 출연,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아렌스키, 보로딘 등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러시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연주/스트링 아데소(바이올린 김주영, 이종은, 황재윤, 박은경, 비올라 김규, 박명훈, 첼로 김민승, 이호찬), 김종완(피아노&편곡), 조윤환(테너)
- 해설/조희창(음악평론가)

연극

연극 수상한 흥신소 2탄

일 시 | 9월 2일(목)-2022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14년 대학로에서 초연된 후 전국 28개 도시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웰메이드 창작극 '수상한 흥신소' 두 번째 무대.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탄탄한 구성, 시시각각 터지는 웃음으로 그동안 200만 이상 관람한 스테디셀러 연극으로 자리잡은 '수상한 흥신소'는 이번 2탄에서 더욱더 발랄하고 유쾌해진 로맨틱 코미디로 관객들과 만난다. 영혼을 보는 청년 오상우, 그는 영혼들의 이르지 못한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서비스센터 앞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의 범인을 찾기 위해 봉투를 뒤지던 그는 의문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 그가 벌인 일로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데...

연극 편의점 진상들

일 시 | 10월 14일(목)-2022년 1월 16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30, 5:00(12월 24일·31일 오후 4:00, 7:00, 12월 25일 오후 2:00, 4:00, 6: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신촌문예 등단작가인 최보윤과 연극 '체인징 파트너', '오늘도 극한직업' 등 코미디극의 히트 연출가 장세윤이 의기투합해 제작한 신작 코미디극.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며 가족들 눈치보기 바쁜 취준생 상식은 담배값이라도 별자는 마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어느날 당첨금 30억의 로또 1등 종이 손에 들어온다. 퇴근만 기다리는 상식 앞에 이 지역 최강의 빌런 일명 K손놈들이 들이닥치고... 편의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K손놈들의 진상과 풀깃한 로또 사수 대작전이 관객들을 웃음세계로 이끈다.

연극 벵어리장갑

일 시 | 10월 15일(금)-11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워너스아트컴퍼니 010-6633-4791



말은 못해도 세상 말 많은 여자 이레와 어찌다 로맨스에 빠진 혈기왕성한 상남자 승진이 펼치는 로맨틱 코미디극 '벵어리장갑'. 친구의 실제 연애담을 극으로 옮긴 '벵어리장갑'은 창작된 캐릭터가 아닌 스무 살 청각 장애인의 실제 모습을 반영, 그녀의 기상천외했던 러브 스토리를 무대에 재현해낸다. 특히 이번 작품은 장애인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시선 속에 던져진 승진의 감정 변화를 가감 없이 코믹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낸다.

시나위 공연기획단 명작시리즈 3탄 연극 갈매기

일 시 | 11월 4일(목)-1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시나위공연기획단 010-8793-1172



지속적인 예술활동과 역량 있는 작품개발을 통해 부산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인증받은 시나위 공연기획단의 명작시리즈 세 번째 무대 '갈매기'.
근대연극의 창시자라 불리는 세계적인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는 젊은 작가 지망생 트레블레프와 그의 어머니인 여배우 아르까지나, 어머니의 정부인 유명한 통속 작가 프리고린, 트레블레프의 연인이자 배우인 니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욕망과 좌절, 한계 등을 묘사한 작품이다.

- 작/체호프 • 번역/전훈 • 연출/이기호
- 출연/김혜정, 박상규, 양진철, 우명희, 오세인, 이등규, 이승재, 배연주, 박하늘, 김가은, 이선준, 김민석

제9회 부산가을소극장페스티벌 명작 이바구

일 시 | 11월 5일(금)-2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지역 소극장**
입장료 | 작품별 전석 2만원
(4개 작품 관람 패키지 BIG4 4만원, 전 작품 관람 패키지 BIG8 72,000원)
문 의 | 부산소극장연극협회 723-2013



올해 무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및 작품을 모티브로, 부산 지역의 특색과 배경을 활용하여 명작과 만나는 '명작 이바구' 열전으로 펼쳐진다.

극단 맥 '내가 조선의 카르멘이다'
5일(금)-7일(일) 소극장 6번출구
• 원작/프로스페르 메리메 '카르멘'
• 각색, 연출/이삼미

드렁큰여터 '담'
7일(일)-9일(화) 열린아트홀
• 원작/아돌프 후거드 '아일랜드'
• 재구성, 연출/윤준기

로맨틱 코미디극 러브액츄얼리

일 시 | 11월 5일(금)-2022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2/25일 오후 2:00,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주)플레이더 부산 1600-0316



커플 선호도 1위, 데이트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로맨틱 코미디극 '러브액츄얼리'.
100일 기념 1박2일 여행을 계획하는 캠퍼스 커플인 수진과 재운,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해지는 재운과 그 모습이 속상한 수진,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세월을 맞은 공원 벤치에서 예전 추억을 떠올리는 재운과 수진 등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는 100일 커플,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로운 1,000일 커플, 가족인지 애인인지 헷갈리는 10년차 커플 등 모든 커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 연애사가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뮤지컬 시카고

일 시 | 11월 19일(금)-21일(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6:30, 26일(금)-28일(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6:30, 일요일 오후 2:00**
부산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14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밝은누리 1566-9621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 공연되고 있는 브로드웨이의 상징 같은 뮤지컬이자 전 세계 36개국 500여개 도시에서 공연된 스테디셀러 뮤지컬 '시카고'.
제츠의 열풍과 범주의 향취가 물씬 풍겨나는 퇴폐의 도시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도발적 스토리와 브로드웨이의 전설적인 안무가 밥 파시의 스타일 가득한 안무, 라이브밴드의 재즈 선율이 어우러지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그동안 1,146회 공연, 평균 객석점유율 90%를 보이며 대한민국 뮤지컬의 정상을 지켜오고 있다.

극단 아센 'Pension 누구나'
11일(목)-13일(토) **하늘바람 소극장**
• 원작/해롤드 핀터 '생일파티'
• 재구성/김혜숙 • 연출/호민

극단 등나무 '책방지기'
15일(월)-17일(수) **레몬트리 소극장**
• 원작/마레이 쉬스갈 '타이피스트'
• 재구성, 연출/양재영

극단 어니언킹 '해안도로'
17일(수)-19일(금) **공간소극장**
• 원작/탄크레드 도르스트 '위험한 커브'
• 각색, 연출/전상배

부두연극단 '변신(變身) 변심(變心)'
11월 19일(금)-21일(일) **액터스 소극장**
• 원작/프란츠 카프카 '변신'
• 재창작/김지숙 • 연출/안준영

극단 빅스풀 '퓨전 사랑 소리나다'
[지역교류초청공연]
11월 13일(토)-14일(일) **용천리탈 소극장**
• 작/정세혁 • 연출/정창석

극단 아이컨텍 '몽키트랩(Monkey Trap)'
[소극장 우수창작희곡 공연]
9일(화)-11일(목) **나다 소극장**
• 원작/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 '원숭이 손'
• 재창작, 연출/박용희

예술집단C MEM(MEM)

일 시 | 12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민주공원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예술집단C 010-2591-0624

지난 2014년 10월 연극, 무용, 전통연희, 미술, 영상, 음악 등 다 장르 아티스트들간의 수평적인 협업 작업을 통해 프로젝트형 공연을 창작, 기획하기 위해 설립된 예술집단C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민의 이야기, 인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인간의 신체와 극을 통해 표현하는 창작극 'MEM(MEM)'을 선보인다.

- 작, 연출/황지선 • 움직임 연출/이용진
- 음악감독/티무리로
- 출연/전성호, 김소이, 김여진, 박소희



무용

김옥련발레단 동화발레
미운 오리 새끼

일 시 | 11월 11일-12일 목-금요일 오전 10:00,
13일 토요일 오후 4: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울속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인 김옥련발레단이 선사하는 동화로 보는 가족발레 '미운 오리 새끼'. 지난 1995년 창단 후 21세기 발레 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콘텐츠 개발과 레퍼토리 확보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김옥련 발레단의 '미운 오리 새끼'는 안데르센의 동명의 동화를 가족발레로 제작한 작품으로, 서로의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타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일깨워주는 감동과 휴머니즘이 있는 무대 '미운 오리 새끼'를 선보인다.

연출, 각색/유상훈
안무/김평수, 김옥련
음악/전현미

콘서트

안녕? 손호영
Hello? SHY

일 시 |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전석 12만1천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스트릿 우먼 파이터
ON THE STAGE

일 시 |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1:00, 6: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전석 12만1천원(만 12세이상 관람)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슈퍼밴드2 콘서트

일 시 | 12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WSM 1566-5490

행사

11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11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이탈리아 벨칸토오페라 3인방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

상할 수 있다. 특히 오페라바움에서는 매주 이어지는 성악가의 땀방울과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최신 영상물을 통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 감상을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
5일(금) 로시니 '신데렐라'
12일(금) 도니제티 '돈 파스칼레'
19일(금) 도니제티 '라 파보리테'
26일(금) 벨리니 '몽유병의 여인'

11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화요일 오전 11:00,
18일(목) 오전 11:00, 29일(월) 오후 2:00
시네바움
입장료 | 강좌당 1만5천원 (오전 공연은 무료, 소수 정원제, 문자 예약 필수)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일(월) 오후 7:00 김준권의 삼국지 인물 시리즈 (3) 굴신인육(屈身忍辱) 견인(堅忍)의 인물, 손권
강사/김준권(위당역사사상연구소 소장)

매주 화요일 오전 11:00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8일(월) 오후 7:00 시네필의 영화 느끼기 '박찬욱 감독의 영화세계: B급 신사의 A급 근심'
강사/김영광(영화평론가)

15일(월) 오후 7:00 리브 김의 철학의 바다 부조리함에 대한 두 개의 시선 '장 폴 사르트르와 토마스 네이글'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18일(목) 오전 11:00 낭송과 낭독 그리고 토크, 목요일의 브런치_장 꼭또 대상시집 '내 귀는 소라껍질'(이가람 옮김, 열화당)



진행/김비주, 박노경, 황해경
22일(월) 오후 7:00 정병언의 생각산책 '블루는 색이 아니다'
강사/정병언(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29일(월) 오후 2:00 집단지성의 Humanitas '역사를 보는 다섯 개의 시선'
강사/양순철(서울기독대학교 겸임교수)
29일(월) 오후 7:00 정해성의 문화공간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미술과 음악'
강사/정해성(문화평론가, 청도 라움 Y 대표)

2021 부산인문프로젝트
바닷가 걷기와 섬의 문학

일 시 | 11월 3일 수요일 오후 6:00 대표 바닷가
입장료 | 무료(선착순 12명, 문자 예약 필수)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맨발일기'의 저자인 맨발의 인문학자 권택환 대구교대 특수통합교육과 교수의 진행으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은채 부산의 바닷가를 걸으며 섬의 미학에 빠져본다.

2021 부산인문프로젝트
인문투어 4. 다크투어
임관과 6·25의 상흔을 찾아서

일 시 | 11월 10일(수)-12월 8일(수) 매주 수요일
오전 9:30 부산지역 곳곳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임진왜란과 6·25의 상흔이 남은 역사적 공간으로 5차례 인문투어를 떠난다.

일정
11월 10일(수) 러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유적지 외양포를 찾아서_가덕도 트레킹
11월 17일(수) 민주공원을 찾아서_상해거리&중앙공원 트레킹
11월 24일(수) 강제동원역사관&부산박물관&UN공원 트레킹
12월 1일(수) 정공단&중산왜성&이중섭 테마거리 역사기행과 트레킹
12월 8일(수) 임시수도기념관&석당박물관과 감천마을, 최민식 사진갤러리 트레킹

김옥균의 클래식 아카데미 클래식 살롱&월드뮤직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3개월 수강료 12만원(각 프로그램별)
 문 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아카데미'.

매주 화요일에는 '월드뮤직(세상의 모든음악)', 목요일에는 '클래식음악 감상회가 개최된다.

월드뮤직 프로그램

시리아음악 특집-시리아 출신 피아니스트, 작곡가 말렉 잔달리(Malek Jandal)의 '우가리트의 메아리' 등
 그리스음악 특집-그리스 국민음악의 신비한 선율 음악영화 시리즈-영화 '원스' 감독판 다시보기

포크&Pop Live Concert(특별출연/나기혁과 나나 엔젤스 밴드)

클래식살롱 프로그램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 전막 해설감상
 베를린 필하모닉의 '2021 발트위네 음악회' 공연실황
 베토벤 음악영화 '카핑 베토벤', '불멸의 연인' 감독판 다시보기
 슈베르트 타계 193주년 기념 '미완성교향곡의 만남&빈 음악기행'

제169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일 시 |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010-6367-0149

- 특별출연/소프라노 조신미

제1회 창원 국제 음악·무용 콩쿠르/페스티벌

일 시 | 11월 30일(화)-12월 3일(금)
성산아트홀, MBC경남홀
 문 의 |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Edu
 02-714-2628



창원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케이아트 에듀와 함께 마련하는 '제1회 창원 국제 음악·무용 콩쿠르/페스티벌'.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등 음악대회 부문과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무용대회 부문으로 나

눠어 진행된다.

- 접수기간/11월 23일(화)까지
- 접수방법/event-us.kr/changwonkart/event
- 참가자격/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재학생 포함), 홈스쿨
- 시상내역/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전시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사람의 그때

일 시 | 9월 11일(토)-12월 26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사진의 기록적 가치와 예술적 의미를 가장 솔직한 사진창작으로 변함없이 펼쳐고 있는 강운구 선생의 인물사진전

사람의 그때는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진가 강운구 선생이 만난 인연의 발자취를 지속적으로

기록한 전시로, 문인, 화가 등 인물사진 163점이 전시된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오노프 ONOFF

일 시 | 9월 15일(수)-2022년 2월 2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H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제15회 대한민국 한서미술대전 (전국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일 시 | 11월 9일(화)-11월 13일(토)
갤러리 을숙도
 문 의 | 한서미술협회 808-2322

백낙호 제11회 개인전

일 시 | 11월 22일(월)-11월 28일(일)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금정문화회관 연말기획전 다시_연결하기 RE_CONNECT

일 시 | 11월 12일(금)-12월 24일(금)
금정문화회관 전시실 및 로비, 복도전시장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코로나 19로 단절된 문화예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하고자 마련한 금정문화회관 연말기획전.

김대홍, 조미애, 이원숙 등 해외 거주 작가 3인과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명, 고석, 김지오, 배지민 등 4인의 회화, 설치미술, 영상 등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기간에는 작품들과 연계한 다양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일·공휴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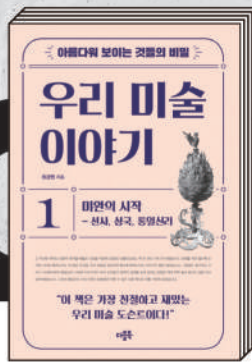


책 속을 걷다 - 통찰의 자취를 찾아

하창수 지음 / 전망
406p / 2만원

인간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이다. 개인은 매 순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그 개인들의 집합체인 인류는 지구에서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살아왔다. 하창수 평론가는 “약 6천 년 전,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전 200년에 걸쳐, 중국, 인도, 그리스에서 인간 의식의 바탕을 이루는 정신적 사건들이 일어나,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삶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칼 야스퍼스는 이 시기를 ‘차축시대’라고 부르며, 이때부터 중국과 인도와 유럽에서 세 갈래 병행하는 발전의 길이 열렸다고 본다. 이 무렵부터 인간의 여러 가지 근본 문제들이 종교적, 철학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들이 나와, 아직도 우리에게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부딪힌다. 그 문제는 가장 보편적이고 또 근본적이다. 인간과 만물, 삶과 죽음, 선과 악, 소유와 존재, 존재와 인식, 이론과 실천, 정통과 이단, 성장과 성숙, 욕구와 욕망, 지배와 저항... 익숙하지만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이 책은 38가지 항목의 중요한 인간사에 대한 의문과 답변을, 차축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의 통찰에 힘입어 살펴본다. 인류의 통찰 역사 한가운데를 걷는 기분이 드는 책이다.

3월 1주
추천도서
바라보는
책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의 비밀 우리 미술 이야기

최경원 지음 / 더블북
436p / 2만 9천 800원

‘미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서양미술을 떠올린다. 아쉽지만 우리의 미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수년간 학교에서 미술을 배웠지만, 막상 ‘우리 미술’을 제대로 보지도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얼마나 눈부셨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고, 현재에도 통찰 디자인이라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의 비밀 우리 미술 이야기>는 전 5권 시리즈로 구성됐다. 디자인 인문학자 최경원이 대중에게 우리 미술과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자 10여 년간 기획하고 집필한 역작이다. 저자는 10여 년간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유적지를 발로 뛰면서 직접 작업한 수천 컷의 그림, 사진을 수록했다. 그 결과물로 우리 유물을 디자인 인문학 관점에서 당대의 실용성과 사회적 심미성, 유행, 보편적 조형성 등을 분석하고 재해석한 국내 최초의 책이 탄생했다. 현재 박물관에 진열된 유물을 생각해보자. 그 유물들은 전시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필요해서 만든 실용품이 대부분이다.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했던 것들이며, 그 시대의 디자인이다. 이 책은 디자인 인문학 관점에서 우리 미술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조선의 은밀한 취향

곽희원 지음 / 인물과사상사
316p / 1만 7천원

고종은 도자기 애호가였다. 고종은 프랑스의 마리 프랑수아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선물한 도자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조선의 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프랑스에 사기 제작 기술을 가진 공장 초빙을 요청하기도 했고,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초대 공사에게 프랑스 건축가의 고용과 삽화가 들어 있는 프랑스 건축 서적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답례로 프랑스 대통령에게 ‘청자 앵무새 무늬 대접’과 ‘청자 모란 넝쿨무늬 꽃 모양 대접’, 왕실 공예품 ‘반화’ 한 쌍을 보냈다. 도자기를 사랑한 고종의 취향이 흥미롭다. 이 책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조선 왕과 왕비 등 왕실 가족의 다양한 면모를 취향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한다. 사냥 덕후였던 태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종묘에 제사를 지내러 가던 중에 몰래 사냥을 했다. 불꽃놀이 좋아하는 성종 연간에는 매년 12월 30일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행해졌다. 당구를 좋아하는 순종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당구치는 날로 정했다. 왕실 가족은 일거수일투족을 신하들의 간섭을 받아야 했지만 이들도 사람인지라 고양이 집사, 그림 컬렉터, 소설 탐독가, 판소리 후원자, 화초 수집가 등 자신만의 취미와 오락을 통해 즐거움을 찾았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 윤경선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으로 있는 윤경선이 제45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부산민속예술관에서 열린 제45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는 부산광역시와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영남지역의 대표 전통예술경연대회로, 지역 전통예술의 진흥을 모색하고 신인 전통예술인 발굴 및 명인의 등용문으로 올해로 45회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권위있는 대회이다. 참가부문은 기악, 무용, 성악 등 총 3종목으로, 19세 이상의 일반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 예선 1위로 본선에 진출한 윤경선은 선율이 섬세하고 변화가 다양하며 엇모리와 단모리가 추가되어 장단의 독특한 맛이 있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로 대통령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윤경선은 “가야금을 타는 세월이 늘어날수록 음악에 대해 더욱 겸손해져야 함을 배운다”며 “스승이신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의 명인故 강문득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길을 가는 연주자가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경선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영재교육원과 부산예술대학교, 동의대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부산남부경찰서와 업무협약

(재)부산문화회관(직무대행 박철호)과 부산남부경찰서(총경 김만수)는 지난 11월 22일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체결된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는 부산문화회관 내 다중이용 화장실의 불법촬영 기기 탐지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재)부산문화회관이 자체 운영 중인 성고충 상담센터 사건 접수 후 조사 시에는 부산남

부경찰서 성폭력 전담 경찰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연계받기로 했다. 더불어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의 홍보물을 요청시 적극 게시하고 위기청소년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공연관람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남부경찰서는 “민관 협력 활동으로 최근 급증하는 여성 대상 범죄예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문화예술아카데미 온라인 아카데미 개강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이번 온라인 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우수한 강사진과 양질의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창의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강좌를 제공한다. 모든 강좌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 라이브로 진행되며 질의응답, 채팅 등을 활용한 수강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설되는 온라인 아카데미는 모두 5개 강좌로, 허나영 예술학 박사가 진행하는 '현대미술의 인플루언서', 사진작가 뿌리아 김의 '사진도 예술이다', 일러스트레이터 김효은 작가의 '일상기록, 펜 드로잉', 前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의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 II', 그리고 미학자 김종희의 '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 다양하면서 흥미로운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우선 '현대미술의 인플루언서'에서는 현대미술계의 유

명스타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백남준 그리고 김환기의 삶과 예술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을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다. '사진도 예술이다'는 사진작가가 알려주는 예술사진 이야기로, 촬영방법이나 테크닉 기법이 아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작가와 예술사진들을 살펴봄여 사진에 대한 안목과 나만의 촬영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북 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김효은 작가는 작가와 함께하는 '일상기록, 펜 드로잉'에서는 단순 미술실기가 아닌 다양한 드로잉 작업을 통해 평범한 나의 일상을 특별한 시간으로 꾸밀 수 있다. 상반기 온라인 아카데미에 이어 제2단으로 돌아온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II'는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현직 지휘자가 들려주는 지휘 이야기로, 지휘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세계적인 지휘자를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나는 날마다 신화를 꿈꾼다>, <사람, 나를 이야기하다> 등 다수 저서를 출간한 (사)문화공간 빈빈 대표 김종희가 진행하는 '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한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을 맞이하여 인생 그래프, 가상 유언장 쓰기 등을 통해 나의 현재 삶을 점검해보고 인생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온라인 아카데미는 현재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및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수강 신청자에 한해 사전에 참여 URL 주소를 전달, 이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11월 찾아가는 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11월에도 다양한 곳을 찾아 시민들과 만나다.

- 일정**
- 11월 3일(수) 오후 2:15 거제여자중학교_부산시립극단
 - 11월 6일(토) 오후 2:00 금곡도서관_부산시립극단
 - 11월 16일(화) 오전 10:00 금삼초등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1월 16일(화) 오후 1:30 북구육아지원센터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11월 17일(수) 오후 1:30 북구육아지원센터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21년 문화예술아카데미 온라인 아카데미



다양한 강좌를 비대면으로 만나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 모든 강좌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강좌명	일정	수강료
실시간 라이브 강좌 ZOOM	현대미술의 인플루언서	10. 26. ~ 11.16. (화), 4회 19:30 ~ 21:00	20,000원
	사진도 예술이다	11. 4. ~ 11. 25. (목), 4회 19:30 ~ 21:00	20,000원
	일상기록, 펜 드로잉	11. 6. ~ 11. 27. (토), 4회 10:00 ~ 11:00	20,000원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 II	11. 23. ~ 12. 14. (화), 4회 19:30 ~ 20:40	20,000원
	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12. 8. ~ 12. 15. (수), 2회 19:30 ~ 21:00	10,000원

수강접수 접수기간 9. 13. (월) ~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2021-22

2021-22 BSCC
SEASON PROGRA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1-22 시즌 프로그램

b s c c s e a s o n p r o g r a m

부산을 품다 _ 세상을 잇다 _ 예술로 함께 하다

(재)부산문화회관 2021-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 War Horse>

문화 | 중극장 4.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전설의 리틀농구단

문화 | 중극장 10.9.(토) 14:00pm, 18:00pm
R 60,000원 S 50,000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시민 | 소극장 10.23.(토)~10.24.(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리어왕 King Lear>

문화 | 중극장 10.23.(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문화 | 중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스승의 삶을 хол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일정 연기]

시민 | 소극장 12.17.(금)~12.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무용/발레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운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문화 | 대극장 9.3.(금)~9.5.(일)
금 8:00pm 토·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일정 연기]

문화 | 중극장 11.26.(금)~11.27.(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한국 발레 대표 국립발레단의 12월 선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12.1.(수)~12.2.(목) 7:3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음악/클래식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3.6.(토) 5: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9.16.(목) 7:30pm
R 11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B 50,000원



클라라 주미강&김선옥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11.1.(월)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11.18.(목)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I Musici)

문화 | 대극장 12.18.(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리차드 용재오닐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12.26.(일)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오페라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5.1.(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
브리겐츠 오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

문화 | 중극장 6.12.(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I
라스칼라 <아이이다>

문화 | 중극장 9.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III
<피가로의 결혼>

문화 | 대극장 10.15.(금)~10.17.(일)
금 7:30pm 토·일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이탈리아 모데나코무날레극장
콘서트 오페라 <청교도>

시민 | 대극장 11.10.(수)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V
베를린 국립오페라 <맥베스>

문화 | 중극장 1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국악

전국팔도 핫한 탈꾼들의 제대로 보여주는 탈춤판
천하제일탈공작소 <가장무도>

문화 | 중극장 4.3.(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압도적인 감흥,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음악
<잡비나이 부산 콘서트>

시민 | 소극장 4.30.(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다원예술

브로드웨이를 매료시킨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SNAP>

문화 | 중극장 5.20.(목)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5.28.(금)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8.(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패키지 제외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취소]

시민 | 대극장 12.1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SCC 인문학* 콘서트 : 향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행복의 조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문화 | 중극장 3.26.(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어디서 살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건축가 유현준

문화 | 중극장 4.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진정성의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문화 | 중극장 5.28.(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미술사학자 유홍준

문화 | 중극장 7.30.(일)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風流情談)
공연예술인 김명곤

문화 | 중극장 9.24.(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
뇌과학자 김대식

문화 | 중극장 10.29.(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가족·어린이·청소년

공연장 예술진로교육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 School on Stage

문화 | 중극장 5.26.(수) 11.17.(수)
10: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온가족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모험의 세계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시민 | 대극장 6.19.(토)~6.20.(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1층 60,000원 2층 50,000원
※ 패키지 제외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넘어선 감동
뮤지컬 <알사탕>

문화 | 중극장 7.10.(토)~7.11.(일)
7.16.(금)~7.18.(일) 금 4:00pm
토일 11:00am 2:00pm 4:00pm
1층 50,000원 2층 40,000원
※ 패키지 제외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취소]

문화 | 중극장 9.9.(목)~9.10.(금)
목 7:30pm 금 2:00pm(단체관람)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제)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시민 | 소극장 4.28.(수), 5.26.(수), 6.30.(수),
7.28.(수), 9.29.(수), 10.27.(수) 11.24.(수),
12.29.(수) 7:30pm
All Seats Free



지역프로젝트

부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1 시민트랙축제 [일정 연기]

시민 | 야외무대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12:20pm
All Seats Free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즐기는 배시시한 콘텐츠
2021 배시시 프로덕션 온택트

배시시(BSCC)TV 2021년 하반기
BSCC 온라인 플랫폼 Free Streaming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문화 | 시민 8.14.(토)~8.22.(일)
평일 7:30pm, 주말·공휴일 5:00pm
All Seats 20,000원



실내악의 향연, 음악의 온기를 전하다
2022 (제)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2.1.18.(화)~1.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57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문화 | 시민 1.14.(목)~1.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이경숙&김규연



제572회 정기연주회 선후배

문화 | 중극장 3.1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첼로 정재윤 | 바이올린 김덕우



제573회 정기연주회 슈트라우스 어게인!

시민 | 대극장 4.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임윤찬 |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제57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하반기 연기]

문화 | 대극장 4.30.(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이병욱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시민 | 대극장 5.2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클라리넷 김한



제576회 정기연주회 비제의 교향곡 제1번

문화 | 중극장 6.18.(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이윤수



제577회 정기연주회 프랑시스 뉴앙스 [취소]

문화 | 대극장 7.1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아드리안 페루송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문화 | 대극장 9.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박은주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 베이스 장세종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시민 | 대극장 10.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조진주



제58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문화 | 대극장 1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홍민수



제58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브람스

문화 | 대극장 11.2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피아노 김대진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문화 | 중극장 12.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최희연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부산시립교향악단_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1.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제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시민 | 대극장 2.18.(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3.10.(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
시민 | 대극장 3.30.(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4.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
시민 | 대극장 5.25.(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
문화 | 챔버홀 7.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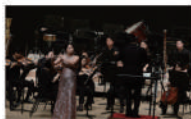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취소]
문화 | 대극장 8.10.(화) 3:30pm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심아음악회 I [취소]
문화 | 중극장 8.2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제77회
청소년합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9.30.(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V
시민 | 대극장 10.13.(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I
문화 | 챔버홀 10.21.(목)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우리아이 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11.(목)~11.12.(금) 11:00a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심아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12.3.(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VI
문화 | 중극장 12.14.(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립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문화 | 대극장 5.13.(목)~5.14.(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사슴시스, 작곡 이진실 | 지휘 이기선



제182회 정기연주회 / 대규모 합창음악회
위로의 메세지
문화 | 대극장 6.24.(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바리톤 고성현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 III
문화 | 대극장 10.7.(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격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시민 | 대극장 12.9.(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반주 카메라타안티파(고음악 전문 연주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강혜정 | 알토 양송미 | 테너 조성환 | 베이스 박흥우



부산시립합창단_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1
새봄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3.4.(목)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상길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문화 | 대극장 7.22.(목) 8:0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취소]

문화 | 대극장 10.25.(월)~10.28(목) 6:00pm
All Seats Free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2
Healing for You

문화 | 대극장 11.9.(화)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수은



부산시립무용단_정기공연

제83회 정기공연
한국춤 명품 컬렉션 '본색'

문화 | 대극장 5.27.(목)~5.28.(금) 8:0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운



제84회 정기공연
소생

문화 | 대극장 12.10.(금) 8:00pm
12.11.(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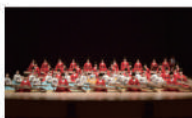
제209회 정기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대극장 3.1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문화 | 중극장 6.10.(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집박 김수일



제211회 정기연주회
국악칸타타

문화 | 대극장 9.8.(수)~9.9.(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 작곡 김은혜 | 작시 이청산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1.(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판소리 박성희, 정선희 | 태평소 김경수 | 가야금 송영남, 하지희
※ 대통령상 수상자 무대



제213회 정기연주회
2021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8.(화)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특별연주회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4.22.(목)~4.23.(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해금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해승(22일)
가야금 박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23일)



신축다례연(辛丑茶禮宴)

문화 | 대극장 5.7.(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정수 | 행다시연 (사)한국차인연합회 부산지원
처용무 부산시립무용단 | 시조 이아미



스타 프로젝트
그대를 그리웁다

문화 | 중극장 7.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취소]

시민 | 대극장 8.11.(수)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가야금 김혜진 | 소프라노 남순천, 김나영
사물놀이 전학수, 이주현, 최오성, 박재현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11.24.(수) 7:30pm



부산시립극단_정기공연

제69회 정기공연
a point of CONTACT

문화 | 중극장 4.9.(금)~4.11.(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20,000원 S 5,000원
작·연출 김지용



제70회 정기공연
벚꽃 동산

문화 | 중극장 7.1.(목)~7.3.(토)
평일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객원연출 강성우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찰스 디킨즈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12.23.(목)~12.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찰스 디킨즈 | 각색/작사/연출 김지용
지휘 이기선 |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극단_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미정
원작 제임스 매튜 베리 | 대본, 작사 강보람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9.28.(화)~10.23.(토) 11:00am
(일요일 공연 없음) ※ 평일 단체, 토요일 일반
All Seats 10,000원
원작 안데르센 |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64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전성기, CLIMAX

문화 | 대극장 3.19.(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 협연 피아노



제65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문화 | 대극장 9.14.(화) 7:30pm
All Seats 2,000원
객원 지휘 강석희



제66회 정기연주회 및 2021년 송년음악회
겨울...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12.2.(목)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중극장 5.2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점점 Poco a poco

문화 | 대극장 10.6.(수)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청소년 실내악의 밤

문화 | 챔버홀 10.23.(토)~10.24.(일)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58회 정기연주회
제비던

문화 | 대극장 5.29.(토) 7: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59회 정기연주회
양탄자타고 음악여행II

문화 | 대극장 11.6.(토) 7: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Unplugged

문화 | 대극장 12.17.(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특별연주회

항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19.(금)~2.20.(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취소]

문화 | 대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ackage Ticket

2021-22
BSCC

프리미엄 패키지(40%) [판매종료]

▪ V+R 320,000 192,000 R 300,000 180,000 S 210,000 126,000

- 프리미엄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프리미엄 2.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프리미엄 3.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프리미엄 4.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프리미엄 5.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연극/뮤지컬 패키지(30%)

▪ R 170,000 119,000 S 120,000 84,000 A 80,000 56,000

- 연극/뮤지컬 1.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연극/뮤지컬 2. 연극 <흑백다방>
- 연극/뮤지컬 3.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연극/뮤지컬 4. 연극 <단편소설집>

발레/무용 패키지(30%) [판매종료]

▪ V+R 240,000 168,000 R 200,000 140,000 S 120,000 84,000

- 발레/무용 1. 에이프만 발레<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안나 카레리나> (작품 중 택 1)
- 발레/무용 2.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 발레/무용 3. 이정윤 안무신작 <MOTI/어디로부터>
- 발레/무용 4.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클래식/오페라 패키지(30%) [판매종료]

▪ V+R 310,000 217,000 R 260,000 182,000 S 190,000 133,000

- 클래식/오페라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2. 프레데리크 기 피아노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3.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 클래식/오페라 4.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NT Live 패키지 [판매종료]

▪ 40,000 28,000

- NT Live 1. 워 호스 War Horse
- NT Live 2. 리어왕 King Lear

<인문학+ 콘서트> 패키지

- 인문학+ 콘서트 6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판매종료]
- 인문학+ 콘서트 4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판매종료]
- 인문학+ 콘서트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판매종료]

Season Program

<시네 오페라 초이스> 패키지

- '시네 오페라 초이스'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판매종료]**
- '시네 오페라 초이스'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판매종료]**
- '시네 오페라 초이스' 2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판매종료]**

자유 패키지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 NT-Live, 인문학* 콘서트, 시네 오페라 초이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신비아파트 시즌4, 알사탕, 피가로의 결혼, 조수미&이무지치, 2021 제야음악회 공연은 패키지에서 제외
- * 자유 패키지는 동일 등급에 한해 구입 가능

패키지티켓 오픈: 2021. 1. 19.(화) 오후 2시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센터 전화예매: 051-607-6000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 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부산문화회관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 출구로에서 유엔 교차로 방향으로
도보 10분



• 시내버스 51번, 68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공연 시간 **1시간 전 / 30분 전** 2회 운행
(※ 공연 시작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변경,
낮 공연 운행 없음)

부산시민회관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 출구(도보 3분 소요)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3번, 남구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

ARS ① 한국어 문의

ARS ② 외국어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홍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중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숙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이율 달라질 수 있음.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 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특별한 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1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 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3월 6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War Horse)>
<리어왕 (King Lear)>
4월 24일(토), 10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20매) **종료**

뉴에이지의 거장, 피아노의 음유시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레데리크 기(Frédéric Guy) 리사이틀
6월 1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빈필과 베를린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6월 22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은반 위에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초두까가 인형
7월 31일(토) 오후 2:00, 5:00, 8월 1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취소**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8월 28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8월 14일(토)~15일(일) 오후 5:00, 17일(화) 오후 7:30,
19일(목)~20일(금) 오후 7:30, 21일(토)~22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회차별 선착순 R석 30매) **종료**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윤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9월 3일(금) 오후 8:00, 4일(토)~5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30매) **종료**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만나수이 손거울

9월 9일(목)~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취소**

꿈꾸는 청춘들의 치열한 농구 한판

창작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10월 9일(토) 14:00, 1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2:00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종료**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10월 23일(토)~10월 24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종료**

잃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1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종료**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11월 26일(금) 오후 7:30,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2022년 연기**

콘서트 오페라 <청교도>

11월 10일(수) 오후 5: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20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11월 18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30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월 1일(수)~2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종료**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

12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10매) **종료**

리처드 용재오닐 리사이틀

12월 26일(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20매) **종료**

* 1인 1~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입국상 어려움으로
해외초청공연이 부득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무료** 회원 가입 캠페인



일상을 컬러 **플** 하게
문화를 파워 **플** 하게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가입기간

2021년 7월 1일(목) — 12월 31일(금)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당첨자 발표

2022년 1월중, 당첨자 개별공지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만원/모바일)
선물5	100명	해리스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5천원/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플러스 회원 가입 신청서



이름

아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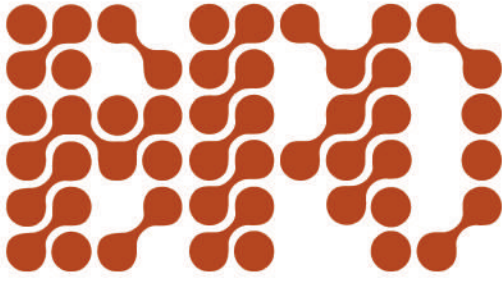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정보제공 활용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202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상반기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최수열
올해의 예술가 양인모

BPO
SYMPHONIC
SEASON
202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Inmo Yang, Artist-in-Residence 2022

New Year's Concert 2022-The Maurice Ravel Cycle V
제583회 신년음악회

1월 21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최수열 / 피아노 김정원



Program

번스타인 / 캔디드 서곡
카푸스틴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한국 초연)
라벨 /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라벨 / 어머니 거위 모음곡



BPO plays Mahler
제584회 부산시향의 말러

2월 16일 수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이병욱

Program

말러 / 교향곡 제5번

Two Masterpieces of Prokofiev
제585회 정점

3월 11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Program

프로코피에프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프로코피에프 / 교향곡 제5번



L'Etranger-The Maurice Ravel Cycle VI
제586회 이방인

4월 1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Program

코른골트 / 바이올린 협주곡
진은숙 / 수비토 콘 포르차 (한국 초연)
라벨 /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Aurora borealis
제587회 오로라

5월 13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Program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2번



Voyage-The Maurice Ravel Cycle VII
제588회 여정

6월 17일 금요일 19:30 시민회관
지휘 이민형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Program

부산 출신의 신진작곡가 / 신작 (세계 초연)
라흐마니노프 / 죽음의 섬
라벨 /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한국 초연)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BPO plays Dvořák
제589회 프라하 중앙역

7월 15일 금요일 19:30 문화회관
지휘 김선욱
첼로 한재민

Program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드보르작 / 교향곡 제7번





모듬북 한민혁 김정우 이산



소금 김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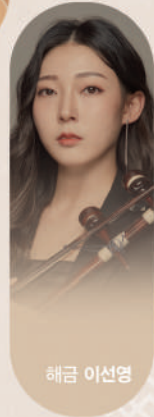
거문고 황진호



25현 가야금
이전매리



태평소 김지연



해금 이선영

꿈과 감성이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프로그램

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와 관현악
해금협주곡 "Verses"
25현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소금협주곡 "길"
거문고 협주곡 "달무리"
모듬북 협주곡 "타"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김종욱

2021. 11. 24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젊은 음악회

Graphic Notation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BPO Night Lab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21. 12.03(금) 2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얼브라운 · 디셈버 1952

Earle Brown · December 1952

보더 코르디에 · 벨, 본, 세이지

Baude Cordier · Belle, Bone, Sage

베르그스트롬 닐슨 · 투워드 언 언베어러블 라이트니스

Bergström-Nielsen · Towards An Unbearable Lightness

심준섭 · 심야음악회, 실험작 제1번

Junseob Shim · NIGHT LAB, EXPERIMENTS NO.1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이민형 Min Hyung Lee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마스

2021. 12. 23 목 ~ 24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재구성/작사/연출 | 김지용(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작곡/편곡 | 백현주 지휘 | 이기선(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안무 | 이정윤(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4인가족 30% 할인(관람연령 만7세 이상) 예매 및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30M "7번가피자" 앞 → 문화회관 주차장 • 출발시간 | 문화회관행 | 월~금 19:00/19:3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대연역행 | 공연종료 후(1회 운행)

제581회 정기연주회

BPO PLAYS BRAHMS

부산시향의 브람스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2021. 11. 26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슈만 · 첼로 협주곡
Schumann · Cello Concerto in A minor, Op.129

브람스 · 교향곡 4번
Brahms · Symphony No.4 in E minor, Op.98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첼로 양성원 Sung-Won Yang, cello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썸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1. 11.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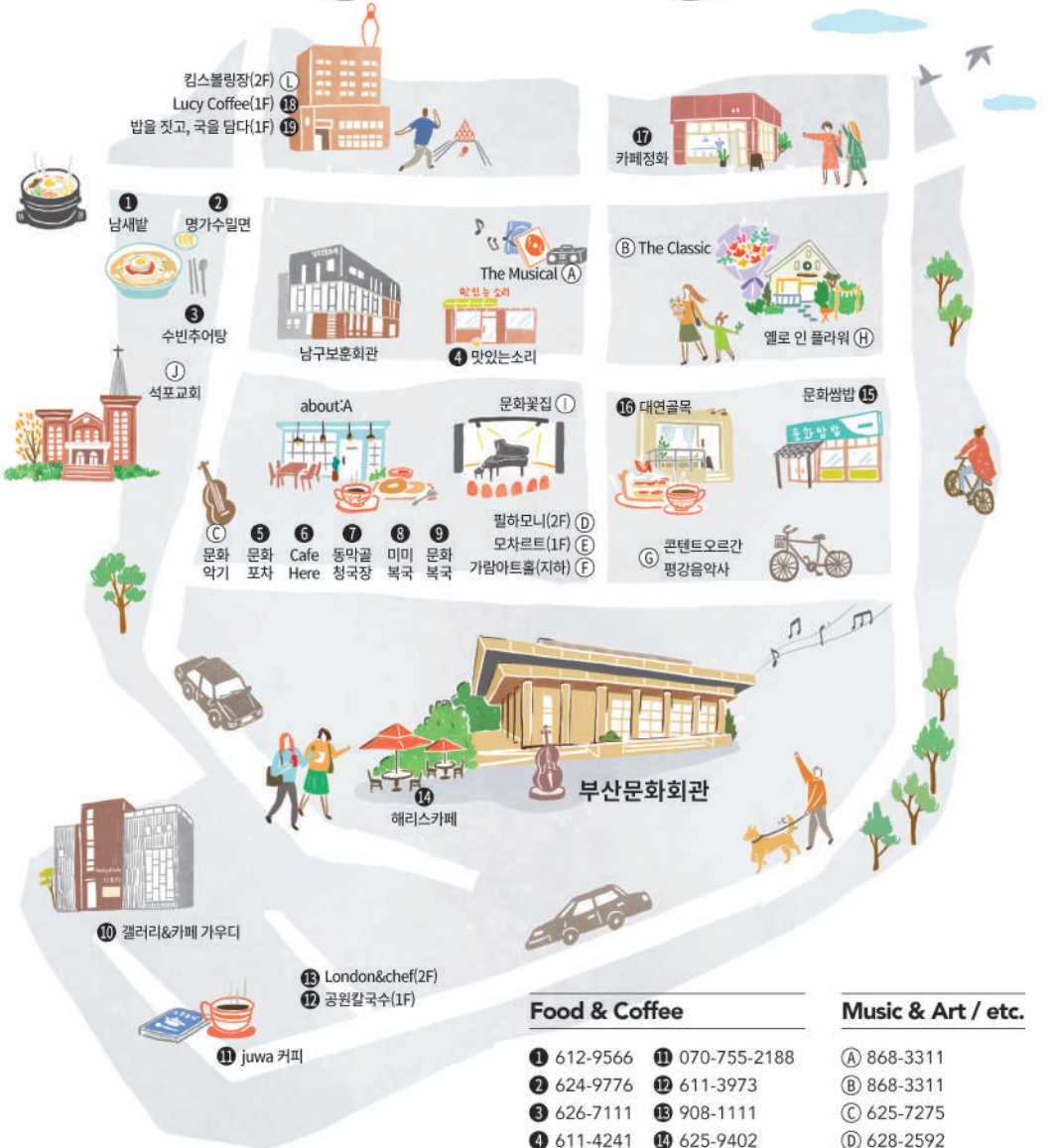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 ② 624-9776
- ③ 626-7111
- ④ 611-4241
- ⑤ 626-4448
- ⑥ 622-7412
- ⑦ 611-3589
- ⑧ 628-8009
- ⑨ 621-7040
- ⑩ 621-5788
- ⑪ 070-755-2188
- ⑫ 611-3973
- ⑬ 908-1111
- ⑭ 625-9402
- ⑮ 626-2292
- ⑯ 010-3996-6498
- ⑰ 623-0772
- ⑱ 628-3832
- ⑲ 714-3559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펀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2021



NOVEMBER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제63회 부조니 콩쿨 5관왕



| 프로그램 |

R. Schumann Kreisleriana, Op.16

F. Busoni 10 Variationen über ein Präludium von Chopin, BV 213a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29 in B-flat Major, Op.106, 'Hammerklavier'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Jae Hong Park

2021. 11. 18^{THU}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iano Recital

|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 티켓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